2006년 통권 제14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4. 2006.

www.artjb.com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뭉크의 소녀일기

이승훈

별이 스러지기도 전에
이슬이 슬그머니 가슴에 내려
방으로 따라와 빗장을 건다.
낯선 창문과 커튼 내리면
암호처럼 다가오는 고독
초췌한 소녀의 기도는 뭉크의 방에 머문다.
드레스 없이 입은 꼭 다물고
마치 활주로에서 벗어난 날개로 창공을 응시한다.
그대 불사조가 되리라고 응원한다.
노틀담성당 신비한 스테인드글라스 빛
가슴에 스며들자
비로소 초경을 시작한 빛과 바꾼다.
노르웨이 소녀가 세느강 물에 발을 씻는다.
울고 있는 소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기장은 그렇게 흐려진다.

약 력
•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 대한문학 등단, 천칭문학회 동인

표지작가안내



이 우 정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현- 전북회화회 회원
-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202
- 전화 : 016-299-2221

전북회화전

고형숙	김서영	김윤숙	박지예
방정엽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 **전시일시 : 2006. 12. 15(금)~12. 21(목)**
- **장　　소 : 전북예술회관(경원동) 2실**
- **초대일시 : 2006. 12. 15(금) 오후6시**

전북 회화회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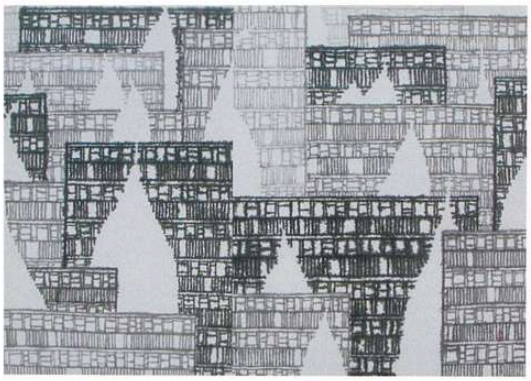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이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켓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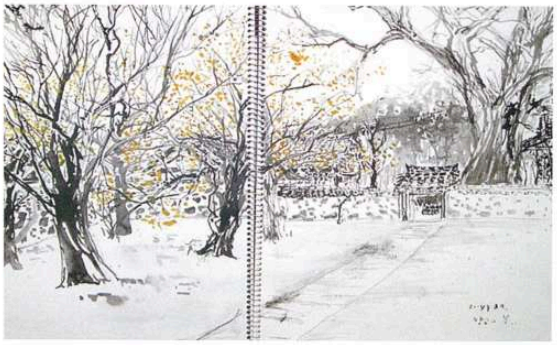
CONTENTS

2006년 제14호 전북회화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올해의 작가	이우정	3	This year's Artist	Lee, Woo-Jeong
전북회화회 발자취	편집부	4	History of the Chobuk Painting Association	Editorial Department
나의 작업노트	고형숙	7	My Work Notes	Ko, Hyeong-sook
	김서영	8		Kim, Seo-young
	김윤숙	9		Kim, Yun-sook
	박지예	10		Park, Ji-ye
	방정엽	11		Bang, Jeong-yeob
	서진숙	12		Seo, Jin-sook
	안순금	13		An, Soon-geum
	엄기석	14		Eom, Gi-seok
	이광원	15		Lee, Kwang-won
	이승훈	16		Lee, Seng-hoon
	이우정	17		Lee, Woo-jeong
	이진숙	18		Lee, Jin-sook
	이철규	19		Lee, Choul-gyu
	이환배	20		Lee, Hwan-bae
	정미현	21		Jeong, Mi-hyeon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수상작	편집부	22	The Winning Paintings of National Juveniles' Art Competition	Editorial Department
전북2006아트페어	최영문	24	2006 Chonbuk Art Fair	Choi, Yeong-moon
전시리뷰			Exhibition Review	
· 엄기석	엄기석	26	· Eom, Gi-seok	Eom, Gi-seok
· 정미현	정미현	28	· Jeong, Mi-hyeon	Jeong, Mi-hyeon
한국화에 대하여	이승훈	30	On Korean Painting	Lee, Seung-hoon
문인화의 현대적 변용	이철규	33	Modernization of Literati Painting	Lee, Choul-gyu
서예의 가치와 전북서예	이은혁	36	Calligraphy's Value and Chonbuk Calligraphy	Lee, Eun-hyeok
작업실탐방			Visiting Artists' Studio	
· 조병철	구혜경	38	· Jo Byong-chol	Ku, Hyeo-kyong
· 조현동	정미현	40	· Jo Hyun-dong	Jeong, Mi-hyeon
작가전시안내-향토작가 고갑주	이환배	42	Ads on Exhibition - Local & Traditional Artist, Ko Gab-ju	Lee, Hwan-bae
미술관을 찾아서			Visiting Art Gallery	
· 엘리자베스 키스전	고형숙	44	· Exhibition of Elizabeth Keith	Ko, Hyeong-sook
· 엘리자베스 키스와 함께한 30분	문혜인	46	· 30 Minutes with Elizabeth Keith	Moon, Hyeo-in
· 광주비엔날레 감상문	김종주	48	· Descriptions & Impressions on Kwangju Biennale	Kim, Jong-ju
· 이탈리아 판화 400년전	이오영	50	· Exhibition of 400 years of Italian Print	Lee, Oh-yeong
· 열풍에 휩싸인 나	장수지	52	· Myself, Wrapped in Recent Trends	Jang, Su-ji
여행기			Traveler's Journal	
· 금강산 기행	이승훈	54	· Journey of Mt. Kumkang	Lee, Seung-hoon
· 가나자와에 가다	배민음	56	· Visiting Kanajawa	Bae, Mid-eum
논 단	안순금	59	Discussion Forum	An, Soon-geum
읽을만한 책	편집부	66	Recommended Book	Editorial Department
회원주소록 및 편집후기	편집부	67	Members' Addresses and Editor's Postscript	Editorial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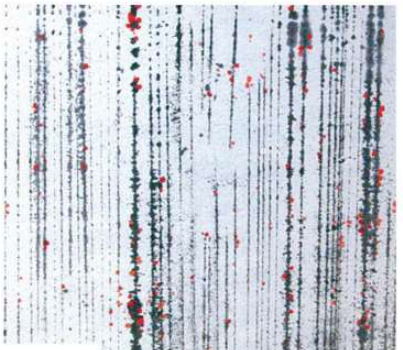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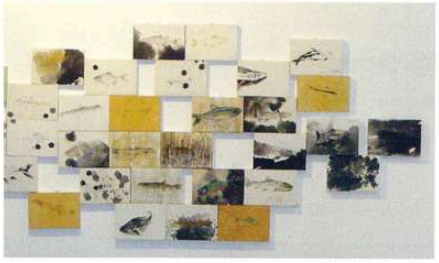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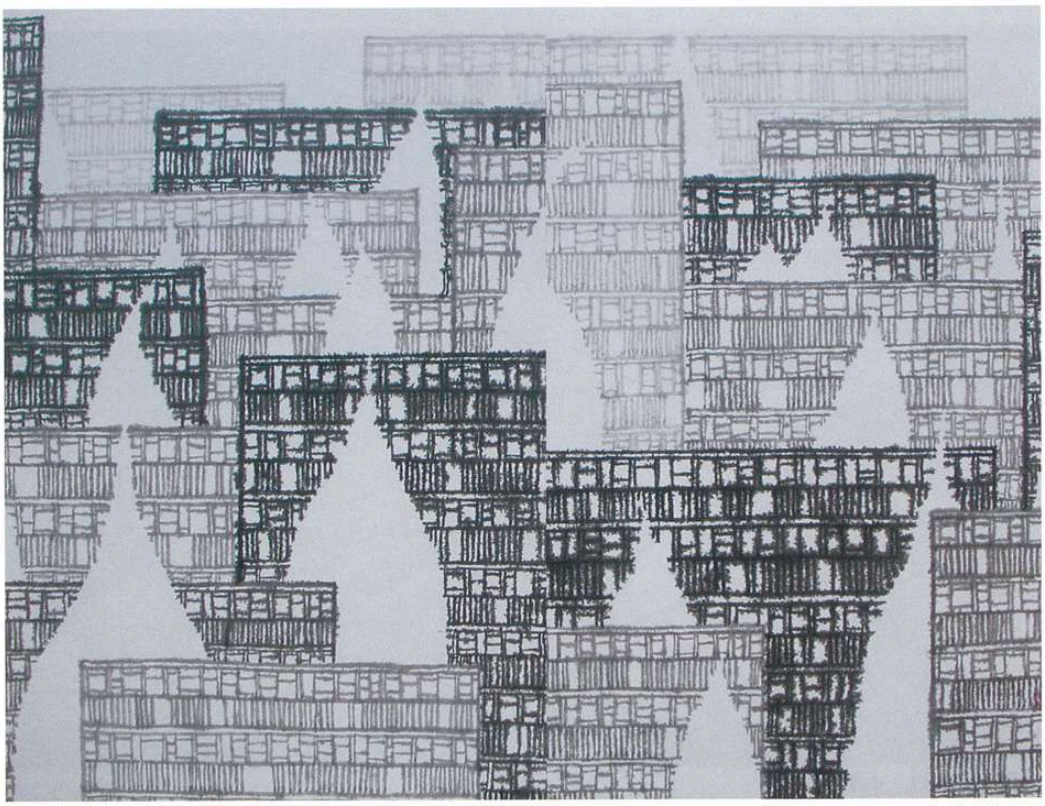







전북 회화
전북 회화
2006년 통권 제14호
전북회화회 발행



호흡 / 140×100cm / 장지에 수묵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하여 패턴화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도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랑하고 슬픔을 느낀다.

나는 이번 작품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변화 없는 도시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고 형 숙(Ko, Hyeong-sook)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 2004 ART SEOUL-예술의 전당, 서울 / 無我 · moi – 서신갤러리, 전주 · 2005 눈을 감고 보다 – 우진문화공간, 전주
- 주소: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 5동 1501호 (우 561-771) • 전화 : 016-653-1833
- E-mail : mimi1001@hanmail.net



생명-움직임 / 10호 / 수묵 채색 한지

대화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존재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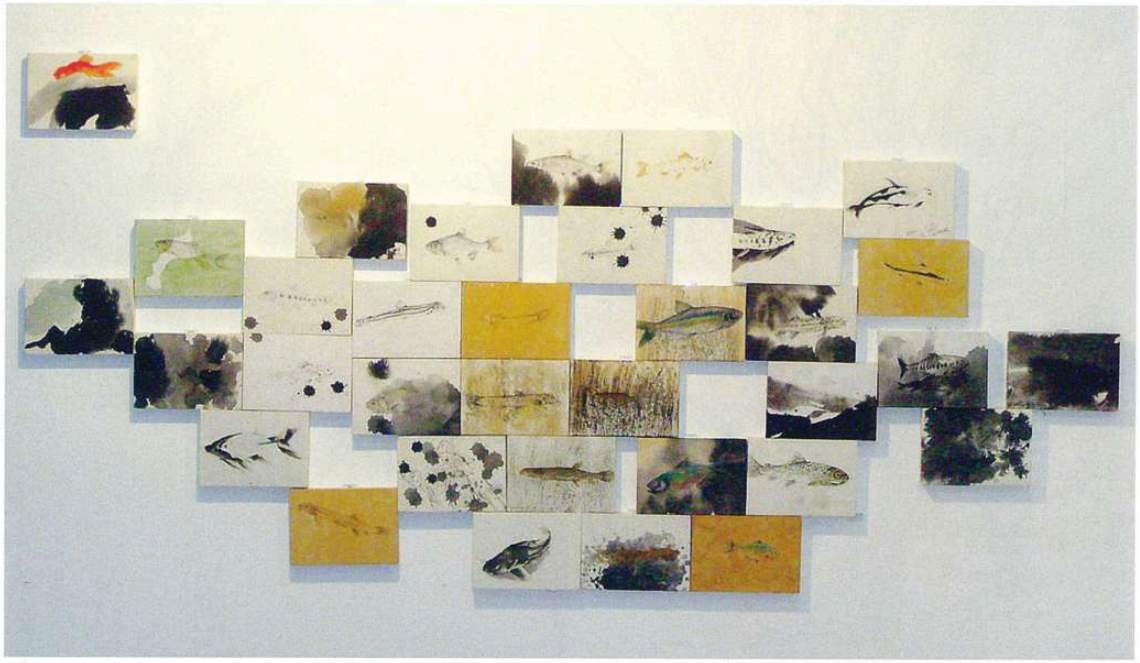
인간의 대화는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관계를 형성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반성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작품이 아닌가한다.



김 서 영(Kim, Seo-young)

• 1997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 · 2002 1회 개인전-수묵과 자연 · 2005 제2회 개인전 – 생명 • 기타 단체전 50여회
• 현) 한국미술협회, 시공회 회원, 전북대학교 강사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금호아파트 108동 907호
• 전화 : 02)443-0128, H:016-610-4264 • E-mail : apt105902@hanmail.net



회유 / 각 30×20cm 가변설치 / 한지에 수묵

하루하루가 마음에 있다.

하루하루가 마음에 있다.

바람을 쐬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쬔다해도..

그 모든게 마음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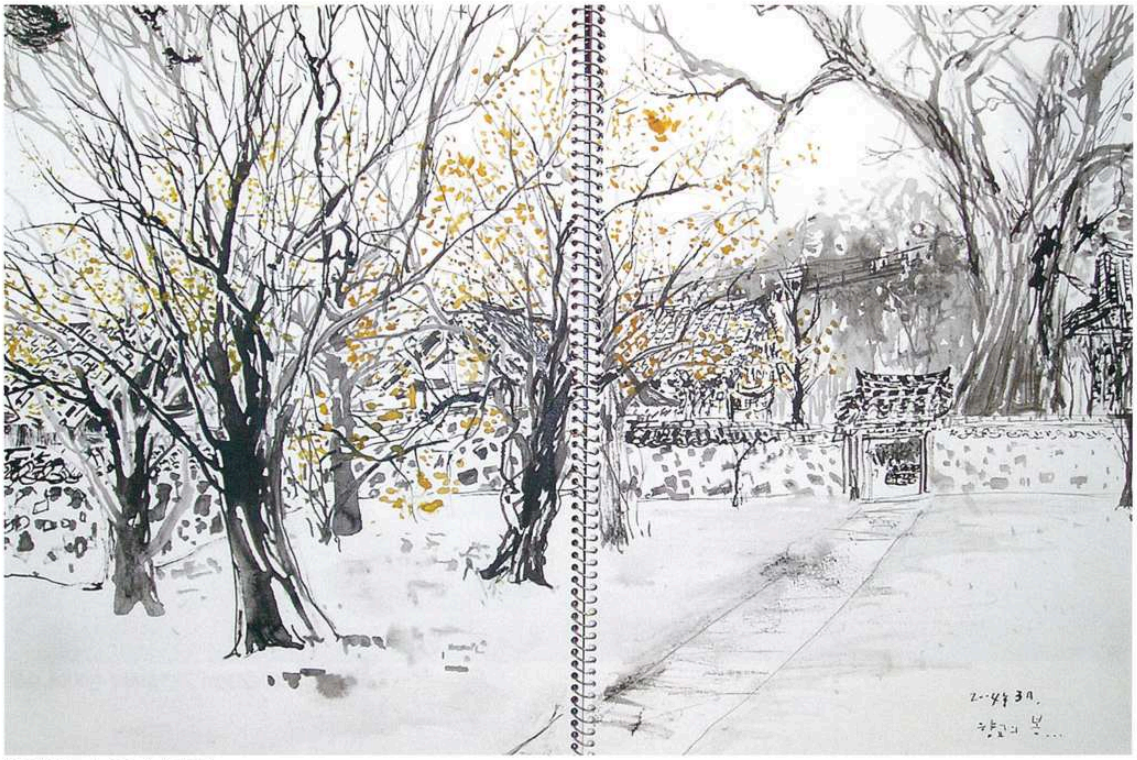
한번 더 손을 내밀고 생각함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생각하는 행복이 바람을 타고 내 옆.. 공기가 되어 흐른다.



김 윤 숙(Kim, Yun-sook)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과 수료
- 개인전 : 2005 일상 雨 마음담기 – 전북예술회관, 전주 / 전북 Art Fair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 그룹전 : 2006 두께를 위한 연습 – 서신갤러리, 전주
  2005 9498전 – 전북예술회관, 전주 / 숨전 – 전북예술회관, 전주 / 독도전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988-30번지 • 전화 : 011-674-5593 • E-mail : sougi2@hanmail.net



봄의 향교 / 4호 / 스케치

신발이 발에 꼭 맞을 때는 발의 존재를 잊듯 행복을 잊고 살던

나는 꽃피는 봄날 향교에 앉아 스케치하던 순간.....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 꽃피는 봄날이다."



박 지 예(Park, Ji-ye)

•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 (단원미술관) •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 (소리문화의 전당)
• (우 561-835)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0-68 • 전화 : 011-624-9715



아들의 노래-버스 / 40×60cm / 장지+채색

아들의 노래-버스

신(神)이 인간의 타락한 삶을 보고
두 천사(天使)를 지상에 내려 보냈단다.
한 천사는 장애(障碍) 아이로,
또 한 천사는 그 엄마로.
그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나.

아이는 열심으로 무언가 그린다.
손에는 온통 물감 투성이.
여덟 살,
세상을 닫고 사는 아이.

우리의 세계에 아이가 갇혀 있는지.
아니면
아이의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해맑은 웃음.
오늘도 아이는 버스를 그린다.
조금씩 문을 여는 아이.
내일을 본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방 정 엽(Bang, Jeong-yeob)

- 전북대 미교과 졸
- 現 전라고등학교재직, 전북회화회 · 한국미술협회원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전화 : 011-681-7127



靑 松 / 100×130cm / 수묵담채

지금까지 외가지 다리 짚어 힘들게 걸어왔건만
이제 춤추리라

푸른 바람을 마시고
한걸음 세상 밖으로 나와 붉은 노을을 마시며
바위틈 흙 파고들어 뿌리내린 난의 향기로움처럼
새벽들판의 풀잎처럼
언덕위의 靑松처럼
버들피리 물오르며 봄노래 들려오듯이...



서 진 숙(Seo, Jin-sook)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1회('95) • 단체전, 교류전, 초대전 80여회 참여
- 현) 한국미협, 전북회회회,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4 • E-mail : mthill@hitel.net • 전화 : 063)282-6304(직), 011-683-2506





내 안에 갇히다 / 28×41cm / Acrylic & pencil

" 나는 단 한번의 강하고 찰나적인 붓 자국을 좋아한다."

나는 내 작품속의 형상들이 단순하고, 회화적이고, 함축적이고, 찰나적이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작업이 시적이고, 이야기를 하는 듯(storytelling)한 특징을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그림속의 형상들은 보통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형태 사이의 모습을 갖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물체나 자연의 부분들은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단 한 번의 강하고 찰나적인 붓 터치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안 순 금(An, Soon-geum)

• 전북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 전북대 교육대학교 미술전공 졸 "동양화의 추상성에 관한 연구" •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예술대학원 졸 • 1997-얼화랑(전주) • 2004-허버트 아트 갤러리(영국) • 2005-우진문화공간 기획 초대전(전주) • 2001-전북,부산 한국화 교류전(부산,금정문화회관 : 전주,삼성문화회관) • 2002-'2002년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전주, 소리문화전당) • 2004-'새로운 지평선' (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 '합류'(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전북 미술의 조명'(전주, 전북도립미술관) • 현) 전북회화회 회원,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군산시 소룡동 성원상떼빌 104동 304호 • 전화 : 063)462-6314(집), 063)544-2512(직), 016-635-6314(휴)



꿈의 정원 / 162×130cm / 장지+황토+먹+목탄+채색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 아담의 이름 뜻은 붉은 진흙덩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며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땅이다. 아니 흙이다. 살아 숨 쉬는 흙은 온 대지에 있는 생명체들을 조화롭게 살게 하는 가슴이 넉넉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다. 삶은 순간과도 같지만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 포기의 잡풀이 피고 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 들녘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경쟁하는 듯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서로 상생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상속에서 영원을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 평범한 것들이 오히려 잔잔한 감동이 있다. 평범한 들풀, 들꽃들이 살아 숨 쉬고 함께 공존하면서 심심한 세상에서 생명력이 출렁거리는 대양의 파도가 되길 기대하면서 나는 주어진 공간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엄 기 석(Eom, Gi-seok)

- 1986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 1990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 2004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북예술회관/전주) / 전북회화회(전주 국립박물관/전주) / 전라예술제 미술 초대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초대전(단원미술관/안산) / 한 · 중 현대미술 소통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전북 중견, 청년 작가 초대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 2005 들꽃의 향연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영 · 호남 상생의 만남전 (메트로 갤러리/광주) / 한국미술 정예작가 초대전(GEORGE MASON 갤러리/미국워싱턴)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발(GIAF)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 / 민촌아트센터 초대전 (민촌아트센터/전주)
- 현재 : 한국미술협회, 전통미술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재직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06-3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 전화 : 063-226-8673 (S) 063-222-8357 (H · P) 011-681-8673 • E-mail : egs3344kr@hanmail.net



歲月 / 60호 / 장지, 먹, 채색

歲 月

나를 이해하는 너와 만난다.
손끝 스쳐간 흔적들이
따사롭던 햇살 속으로 스며들어
긴 기다림을 만들고
알 수 없는 너를 만나기 위해
서성거린지 오래
말이 없는 時間앞에서
느껴지는 순간들이
현재를 알리고 이해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歲月의 아픔을 노래할 것이다.



이 광 원(Lee, Kwang-won)

•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焚奐** •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 단체연립전 2회 • 부산 환경미술제 출품 •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 전북회화회 회원 • 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1-656-6292 •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탁류2 / 20호 / 지본 혼합재료

소설 탁류는 채만식의 대표작품이다. 1937년 10월 13일부터 1938년 5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로 사회의 어두운 세태를 그렸다. 우리 민족의 기구한 처지를 나타낸다. 중간에 백제의 흥망을 더듬는다고 한 것은 나라가 망한 사정을 되새기게 한다. 긍정적 인물들의 수난을 그리는 이 소설에서 우리는 당대의 어두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친일과 반일의 기로에 서있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탁류는 한 많은 역동의 시대에 중심에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알아야할 작품이다. 그의 부친은 상당한 부농이었으나 1905년을 전후해 일제의 조선토지수탈 계략에 의해 경제적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그의 집 가까이에 이엽사 농장이라는 대일본지주가 살았다. 이엽사 농장은 전주, 익산, 옥구에 논 1,000정보 · 밭 200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농민 1,700명을 거느린 거대 농장이었고 본거지가 군산시 서수였다. 탁류를 쓴 채만식의 고향집은 서수와 임피의 경계 지역으로 한 마을이나 같았다. 이엽사 농장주인은 니이가다현 사람들이었고 주임은 사이토오 이었는데, 일본이 밝힌 전국 평균 소작료가 46.7~42.4%였는데 75%의 소작료를 요구하는 악질 농장이었다. 동아일보를 보면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까지 전북에서는 16여건의 소작쟁의가 있었고 군산에서는 이엽사 소작쟁의 이외에도 2건 이상의 큰 소작쟁의가 있었다고 한다.

서수에서 농민들을 옥구농민조합 아래 서수농민조합을 1927년 8월 4일 만들었다. 이어 8월 5일 서수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두 단체는 8월 19일 '농민문제'강연회를 하다가 경찰이 가로막자 '서수농민조합 만세', '서수청년회 만세', '세계 무산자 만세'를 외쳤다니 서수 이엽사 소작쟁의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소설 탁류는 탄생했다. 이 작품에서 정주사, 고태수, 박제호, 장형보는 모두 속물화하고 타락한 1930년대 한국사회의 인간상들이다. 이들은 초봉을 이용하고 탐하며 짓밟는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없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녀를 버린다. 채만식은 소설에서 이 속물들을 그만의 장기인 풍자로써 꼬집는다. 순결한 여인 초봉을 농락하는 이 사회가 채만식이 말하고자하는 탁류이다. 이 그림은 흐르는 탁류 속에 시대의 상들이 떠오르게 했다.



이 승 훈(Lee, Seng-hoon)

•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 東으로 韓國現代美術展(中國西安美術學院美術館) • 全北人物列展(全北藝術會館) • 傳統의 힘, 韓紙와 毛筆의 造形展 外 多數 • 大陸의 메아리展(安山 丹園展示館) • 全北美術의 照明(全北道立美術館) • 現 : 山墨會, 志朋展, 全北繪畵, 韓國美協, 傳統美術敎育硏究會, ART, 益山古蹟硏究會, 천칭天秤文學會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勤務 •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 전화 : 011-9021-9300



비음 III / 20호 / 광목에 채색

작업은 내게

진실이다....

긴 호흡을 들여마실 수 있게 만드는 향기와도 같다.

내 표정도 몸짓도 거침없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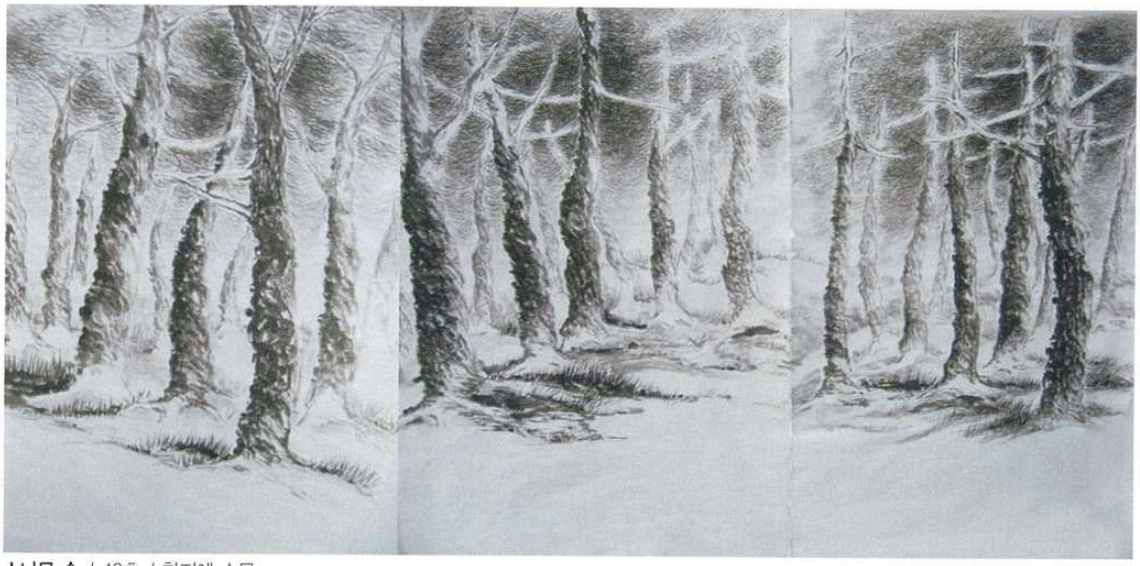
자유로히 작업할 수 있는 그 날이.....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맘껏 그리워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우 정(Lee, Woo-jeong)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현- 전북회화회 회원 •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202 • 전화 : 016-299-2221



소나무 숲 / 40호 / 한지에 수묵

새 생명이.....

어느 별의 왕자님이
이 지구별로 왔을까.....
먼동이 트는 아침
산부인과병동을 통째 뒤 흔들며
왕자님이 첫 울음을 터 뜨렸다.

불길이 솟는 것 같은 숨을 토해내고,
거센 파도가 눈앞에 일렁이고,
폭풍이 휘몰아치듯 몸이 출렁인다.

폭우가 쏟아지듯 온 몸이 땀에 절고,
왕자님의 우렁찬 울음처럼,
천군만마를 부르는 그녀의 외마디가,
지구별을 호통친다.

어디쯤 오고 있니,
황금마차에 몸을 싣고,
은하수를 미끄러지듯,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네 어미가, 네 아빠가, 그랬듯이
또 네 어미의 어미가, 아빠의 아빠가 그랬듯이,
이 지구별에 내려오너라.

그 깊고 깊은 머나먼 길을 용케도 찾아
4.34kg, 55cm
'요 녀석 학교가도 되겠네' 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씩씩하고 우람한 아가야,
너는 2006년 10월20일 아침 7시53분에
이 지구별에 무사히 착륙하였단다.



이 진 숙(Lee, Jin-sook)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석 •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거성고속 2차 912호 • 전화 : 063)274-2662(자), 063)225-6605(작업실), H.P : 011-9437-2662



숨 / 30×60cm / 장지에채색, 이금

나의 작업은

음과 양, 구상과 추상, 채색과 수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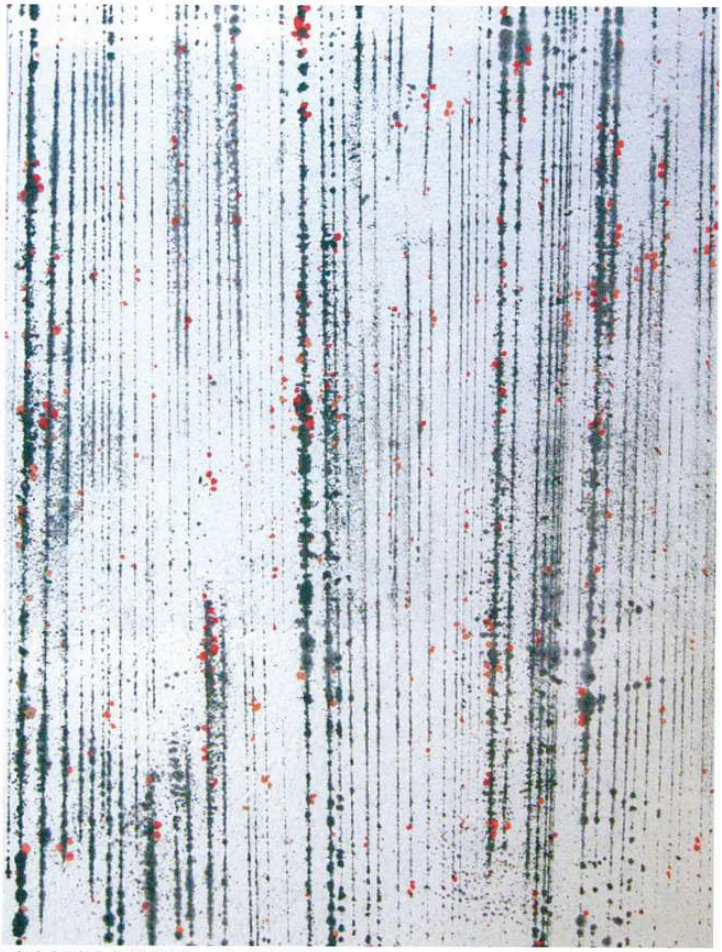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 구조의 그림이다.



이 철 규(Lee, Choul-gyu)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14회(서울, 전주, 미국) • 전북청년미술상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 3인삼색전(공평아트센터,서울) • 02| MANIF전(예술의전당, 서울) • 풍경.신수.풍경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전북도립미술관개관-엄와-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 독섬,독도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 현.전북회화,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90-6 • 전화 : HP : 018-279-3775 063)222-4247(H) 063)640-7205(O)



마지막 잎새 / 80×120cm / 수묵 담채

마지막 겨울이.....

불혹의 나이를.....

아.....

밤새 바람소리에 시달린 나무가지에.....

추억들은.....

.....그리워 진다.



이 환 배(Lee, Hwan-bae)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전주예고출강 • 현)전북회화회 의식의 새물결회, 동국회화회 회원 • (우 560-02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40-5『그린성미술학원』 • 전화 : 011-673-1562



묵상-풍경 / 60×60cm / 천에 수묵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하여...

그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울림이다.

사뭇 내 감정이 고조되어 갈 때는
붓질이 신명을 더해준다.
먹빛도 벙글거리며 즐거이 눕는다.

아! 재미지다.
요 맛이라며 날 꼬드긴다.
좁쌀 맞은 생각도 번득이는 번민도 잊으라 한다.

그랬더니 나무, 땅, 하늘 그리고 산과 강이 나를 부른다.
사람도 그 속에서 향기롭다.



정 미 현(Jeong, Mi-hyeon)

• 개인전 6회 • 단체전 및 초대전 100여회 참여 • 현) 군산 신북중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778번지 • 전화 : 011-682-3560
• E-mail : hyun3560@hanmail.net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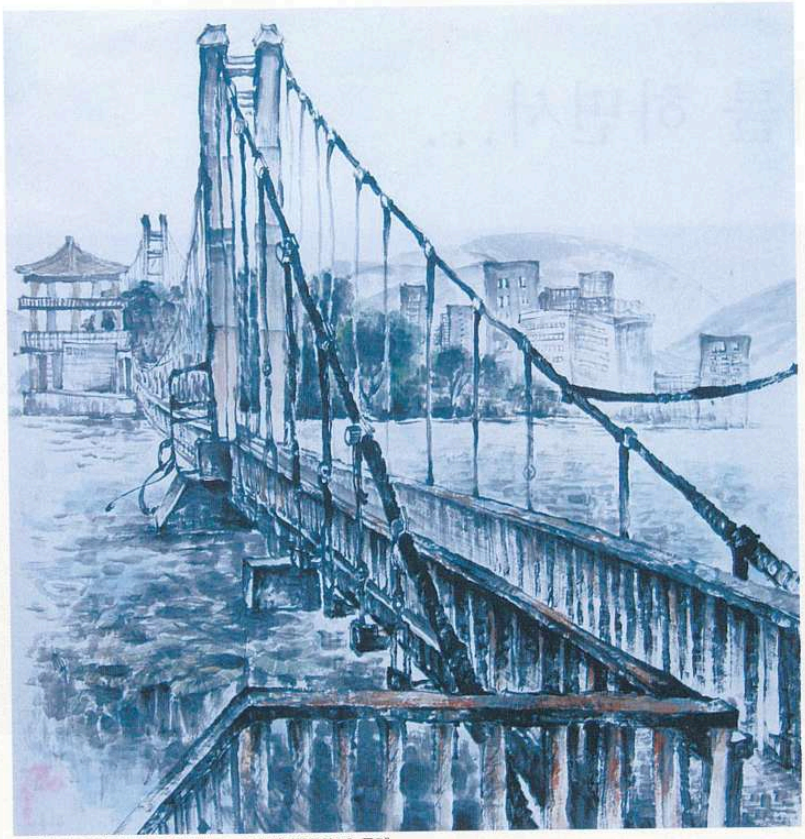
【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수상자명단 - 고등부 】

순	학 교	이름	학년	수 상
1	전통문화고	이다래	2	종합대상(우진문화이사장상)
2	브니엘예술고	이나경	3	고등부:대상(우진문화이사장상)
3	전주예고	박은경	2	최우수상(원광대미술대학장상)
4	충남예고	홍가희	2	최우수상(충남대예술대학장상)
5	명지고	최현정	3	최우수상(전북대예술대학장상)
6	전통문화고	이덕미주	3	최우수상(중앙대예술대학장상)
7	전통문화고	김슬지	2	최우수상(전주대예체능학부장상)
8	전통문화고	이다영	2	최우수상(예원예술대총장상)
9	전통문화고	천영주	2	최우수상(한국미협이사장상)
10	전통문화고	유현희	2	최우수상(전라북도교육감상)
11	전주예고	황유미	3	우수상
12	전통문화고	한송이	3	우수상
13	전통문화고	오한별	2	우수상
14	전통문화고	이신혜	2	우수상
15	전통문화고	강승우	2	우수상
16	김제여고	곽진선	3	특 선
17	천안여상	전유선	2	특 선
18	충남예고	박진영	2	특 선
19	충남예고	정현지	2	특 선
20	전통문화고	진 청	3	특 선
21	전통문화고	임지선	2	특 선
22	전통문화고	박세지	2	특 선
23	전통문화고	오보라	2	특 선
24	전통문화고	유진아	2	특 선
25	전통문화고	김보미	2	특 선
26	전통문화고	김은비	1	특 선
27	전통문화고	최정윤	1	특 선
28	전통문화고	김경민	3	입 선
29	전통문화고	윤가영	3	입 선
30	전통문화고	김재은	3	입 선
31	전주예고	장지은	3	입 선
32	전주예고	이정원	2	입 선
33	천안월봉고	전가을	3	입 선
34	충남예고	김다정	2	입 선
35	호제여고	박현린	3	입 선
36	전통문화고	김새롬	2	입 선
37	전통문화고	서은영	2	입 선
38	전통문화고	장소연	1	입 선
39	전통문화고	김연윤	1	입 선
40	전통문화고	박세나	1	입 선
41	전통문화고	이슬기	1	입 선
42	브니엘예술고	김용덕	3	입 선
43	성심여고	김수현	3	입 선
44	전주예고	박노현	3	입 선

- **대 회 명** :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 **행사일시** : 2006년 7월 12일 (10:00~14:00)
- **행사장소** : 덕진공원
- **참여인원** : 고등부 87명, 중등부 54명, 총 186명
- **심사위원** : 윤여환(충남대), 이철량(전북대), 이철규(예원대) 김문철(전주대), 조남현(교육청), 이선우(홍익대) 김준근(충북대)

【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수상자명단 - 중등부 】

순	학 교	이름	학년	수 상
1	완산중	김은경	2	대 상(우진문화재단이사장상)
2	논산여중	정다혜	3	최우수상(전북교육감상)
3	전주남중	문진영	3	최우수상(한국미협이사장상)
4	군산산북중	유미지	2	우수상
5	양지중	박솔애	2	우수상
6	효문여중	유예빈	2	우수상
7	관촌중	이금선	2	우수상
8	김제여중	배누리	2	우수상
9	완산중	강희	1	특 선
10	완산중	조하은	3	특 선
11	천안여중	김은혜	3	특 선
12	관촌중	오유나	2	특 선
13	김제여중	최수진	1	특 선
14	군산산북중	홍기람	2	입 선
15	효문여중	이수정	3	입 선
16	효문여중	양지윤	3	입 선
17	관촌중	김찬미	2	입 선
18	관촌중	이기쁨	2	입 선



종합대상 :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 ◎ **이다래**(전통문화고2, 풍경)



고등부대상 :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 ◎ **이나경**(브니엘예술고3, 정물)



중등부대상 :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 ◎ **김은경**(완산중2, 풍경)

고등부 최우수상



원광대미술대학장상 ◎ **박은경**(전주예고2, 풍경)



충남대예술대학장상 ◎ **홍가희**(충남예고2, 풍경)



전북대예술대학장상 ◎ **최현정**(명지고3, 정물)



중앙대예술대학장상 ◎ **이덕미주**(전통문화고3, 풍경)



전주대예체능학부장상 ◎ **김슬지**(전통문화고3, 풍경)

고등부 최우수상



예원예술대총장상 ◎ **이다영**(전통문화고2, 풍경)



한국미협이사장상 ◎ **천영주**(전통문화고2, 풍경)

중등부 최우수상



전북교육감상 ◎ **유현희**(전통문화고2, 정물)



전북교육감상 ◎ **정다혜**(논산여중3,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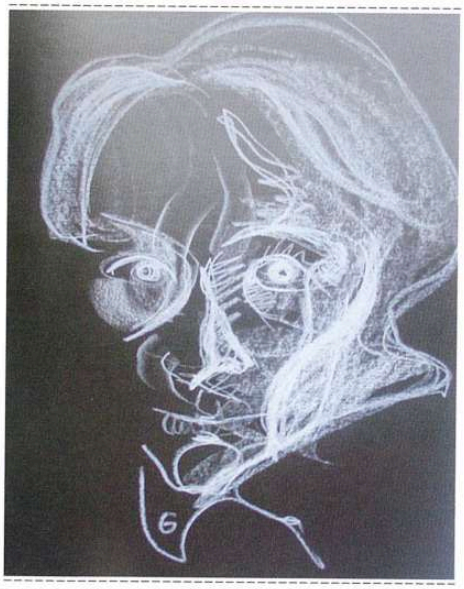


한국미협이사장상 ◎ **문진영**(전주남중3, 정물)

아트페어 – 전시를 하면서...

최영문 (아트페어참여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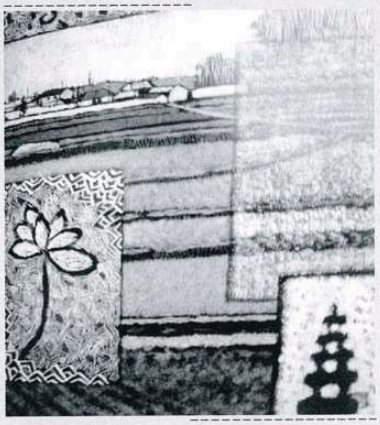


● 전시가 시작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냥 지나치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즉, 예전의 개인전과 아트페어의 부스전의 실속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작가에게 남는 상처는 더 컸습니다. 마치, 의류매장을 지키는 아저씨로 인식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개인전을 하면 다른 작가의 관람자가 내 공간을 찾고, 내전시를 찾는 사람에게 여러 전시를 제공하여 관람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트페어 프로페셔널전시의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아 미술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프로페셔널한 60여명의 작가들이 나름대로 자존심을 버리면서 작품가격도 낮추고, 점원아저씨도 되어보고, 이전보다 주위에 홍보도 더 해보았지만 과연 전시를 마치는 날 가벼운 봇짐에 잔칫상을 정리하는 작가는 몇 분이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판매가 재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액자 집과 뒤풀이 술집에 실속만 제공해주고 다시 한 번 주변사람들에게 신세짐 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요.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과 서울의 아트페어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많은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미술시장은 분명 다릅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한 아트페어 운영이 밉기도 하고, 전주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층의 분석과 이들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체와 홍보-기업의 협찬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광고-가 없다는 것은 작가들에게 한 맺힘으로 남을 만큼 아쉽습니다. 이젠 머리를 차갑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작품의 아래 붙어있어 관람자에게 작품과 가격을 비교해보는 유희의 제공이 큼으로써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위에 작품번호 만 아래에 적고 가격표는 따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 해도 가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나 가격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작품가격표를 볼 수 있게 하는 가림 형 가격공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작품가격표에 표지를 해 놓는 방식이지요. 또한 가격체계를 바꿔 보았습니다. 최저가를 제시하고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은 작가에게 직접 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최종 판매는 작가가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지요. 그리곤 넌지시 고민해 보아야합니다. 내 그림이 문제인지 가격이 문제인지. 분명한 것은 자기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상술이 아닌 재창조의 밑거름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길 작가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가 시작된 넷째 날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을 펼쳐 보이며 이른 아침을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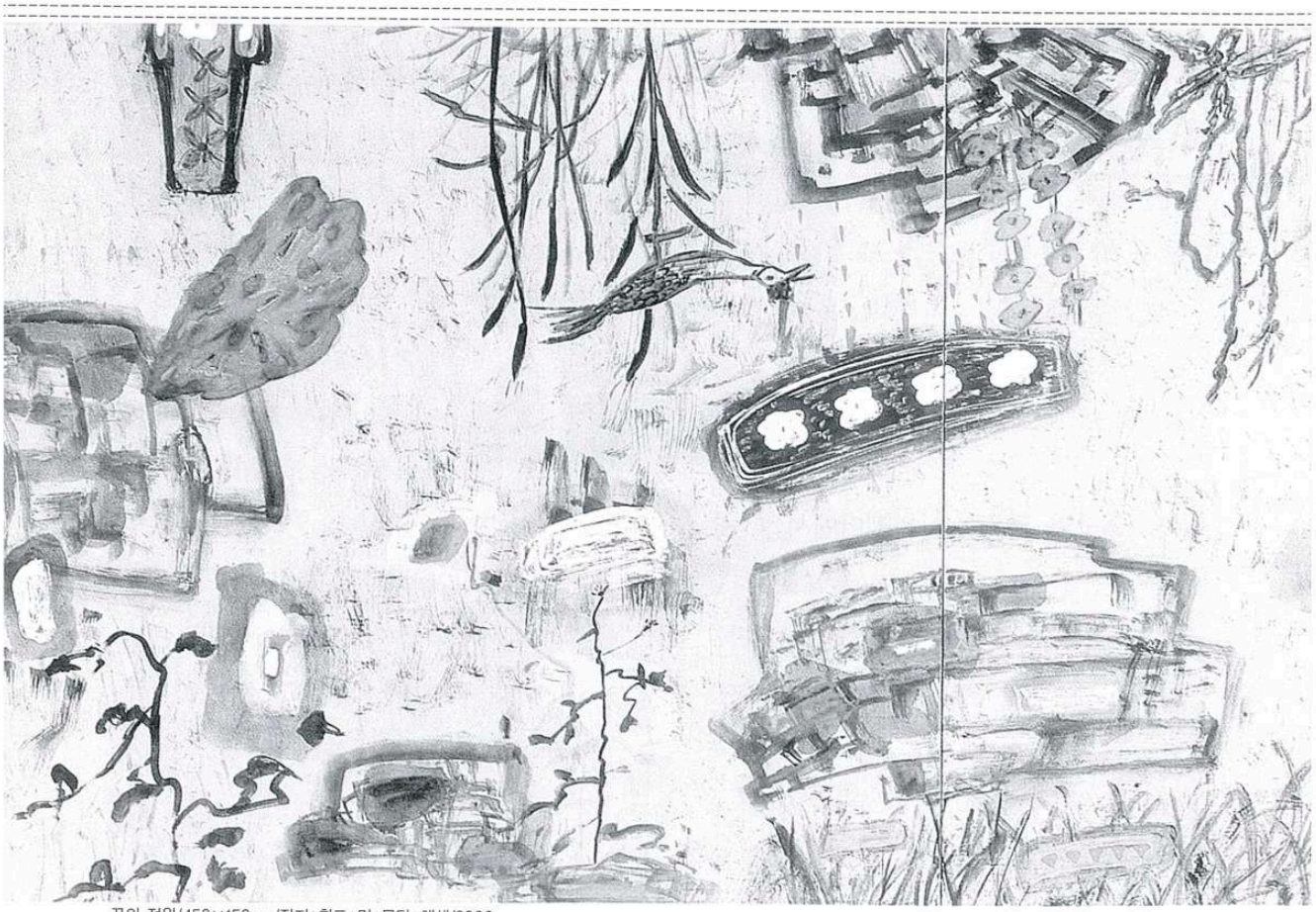
어제 전시장을 이곳저곳 둘러본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 단아가 "아빠그림은 왜 이렇게 싸~, 더 비싸게 써~....." 이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 □ ■

자연의 노래, 생명의 노래

우진문화재단 제22회 청년작가초대전

엄 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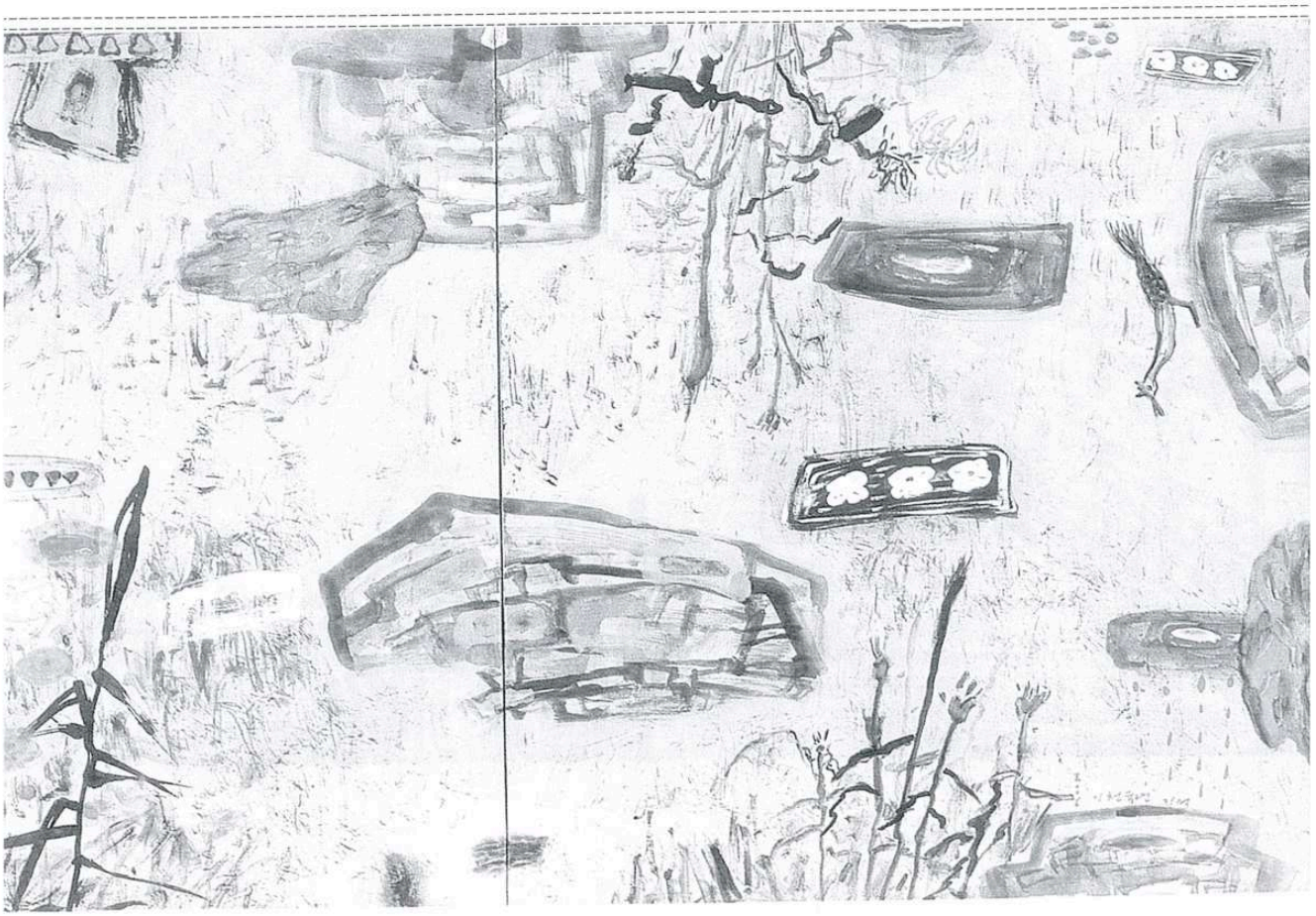
꿈의 정원/450×150cm/장지+황토+먹+목탄+채색/2006

우진문화재단은 작년에 이은 올해의 기획전 시리즈에 기존의 표제이던 청년작가 초대전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년에 이 기획전의 내용과 모양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그 창작정신과 작품 스타일 및 내용이 '청년'인 30대와 40대 작가들 여섯분을 선정하여 초대전을 갖자는 골자였다.

'예향' 전주와 '예도' 전라북도의 주머니 사정이 녹녹치 않은 요즈음,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다. 생활고에 쫓겨 붓을 잡을 엄두를 못내는

작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터에, 창작정신을 굽히지 않고 씨름하는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시의 장을 마련해주자는 뜻이었다. 적어도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온, 그러나 마음과 모양새가 아직 '청년'인 작가들이 '중견작가'로 등지를 트는 긴 여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하는 재단의 의도로 이해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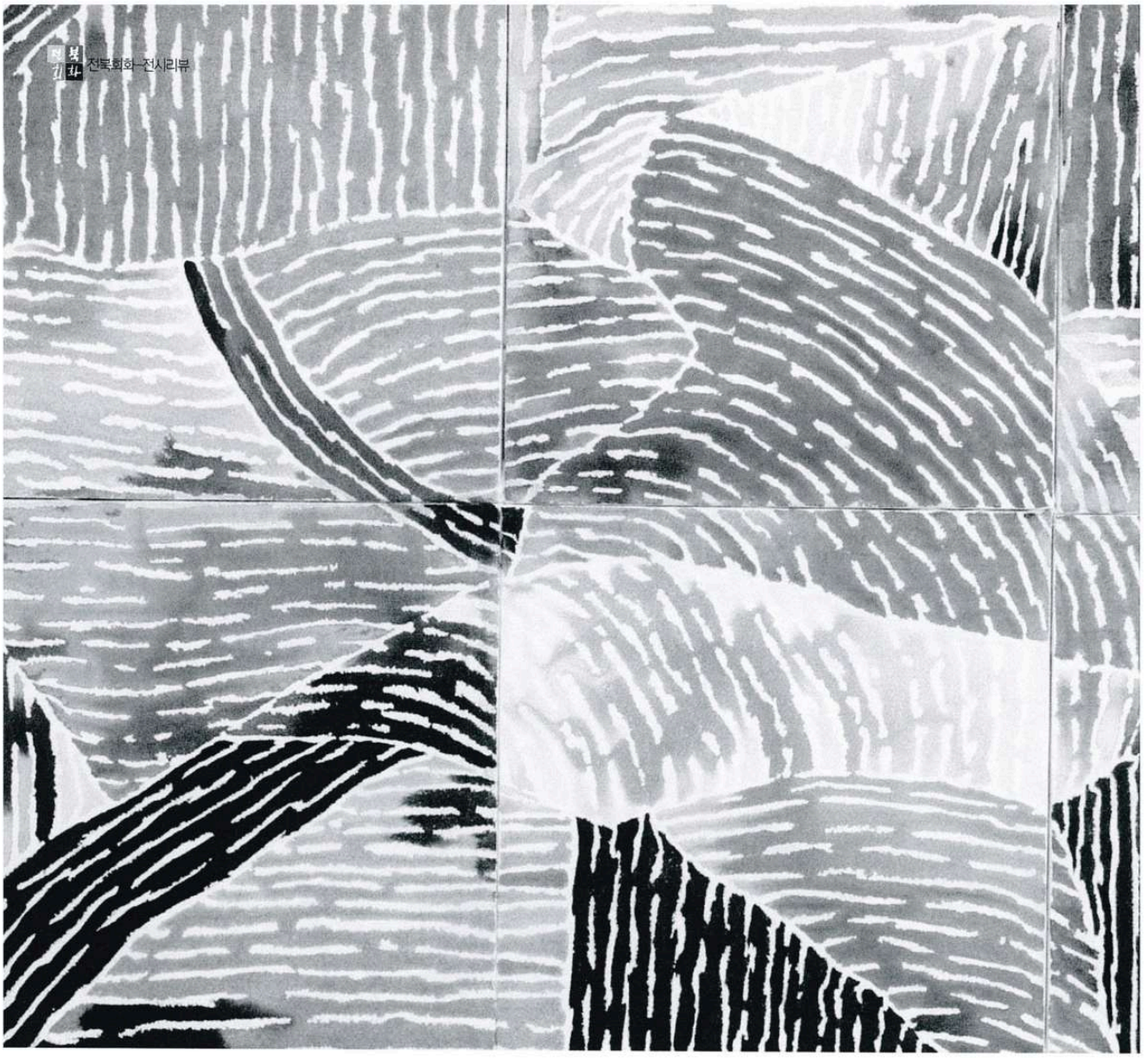
최근에 『꿈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해 온 엄기석은 일상에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자연대상에 내재된 생명력과 조화력을 격조있고 이상적인 전원의 모양새로 표현한다. 얼핏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지상낙원, 아르케디아(Arcadia)를



연상시키는 그의 풍광은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와 시각을 반영하여 황토를 활용한 2차원적인 평면과 3차원적인 입체 및 설치작품들로 구성될 것이다. .....중략.....

●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여섯 작가들의 작업은 각자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텍스트와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기존 미술의 장점과 다양한 요소들을 취하면서도 그 '아류' 이기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성적인 인 자기세계를 현재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라는 점일 것이다. ■ □ ■

조 은 영(원광대 미술대 교수, 우진문화재단 이사)



수묵의 은유...

2006 전북 아트페어 초대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정 미 현

새삼스럽게, 대학시절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즈음의 일이 문득 떠오른다.

작품준비를 앞두고 게으름을 피우며 무엇을 어떻게 그려볼까? 라는 화두 앞에 고민하던 어느 하루, 벤치에 누워 나팔거리는 포플러 나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눈앞에 멋지게 다가오며 크로즈 업 된 풍경이 있었다. 나뭇잎 사이 사이로 햇살이 반짝거리며 빛의 찬란함에 뒤섞인 나뭇잎들이 바람에 팔랑팔랑 나달거리면서 소리 없는 경쾌한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많은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다.

낮에 보았던 그 나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려보고 싶어졌다. 동이 트기를 기다리기란 매우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미술관 문을 두드려 작업실로 들어갔다. 커다랗게 놓여진 하얀종이에 그 소리 없는 경쾌한 연주를 수묵으로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 체험은 내 인생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멀어질 수 없도록 묶어준 끈이었고 水墨畵에 대한 매력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자연 앞에 나를 던져본다.

그들의 유쾌하고 찬란한 연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하고 있다.

그리고 水墨의 빛을 찾아 붓질을 해 본다.

내게 다가왔던 自然과 먹빛, 내 靈魂의 울림을 가져다가 水 · 墨 · 生이라는 주제로 몇 년 전 개인전을 가졌었다. 이번에는 水 · 墨 · 自然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끔씩 안개 속에 쌓여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심정이 되기도 하고, 머릿속과 가슴 한편이 하얀 백지처럼 되어 벽 앞에 선 참담함을 느끼기도 한다. 두렵고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일은 신이 주신 축복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그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탈출을 시도한다.

2006년 6월에도 ...

변함없이 그 환생의 꿈이 영원하기를 빌며.

한국화의 부활을 꿈꾼다

이 승 훈

한국화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학교 교육적 본질에서 본다면 창의성과 독창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생활화 측면에서 도구 사용은 손쉽게 접하기가 어려워 학교 수업에서 다른 용구재료에 밀리기 일수 이었고, 한국화를 전공하여 수업에 임하는 교원도 적었다는 이유를 且置 하더라도 꽤 이유 있는 항변은 없을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과시욕구가 잠재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생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교육학자인 피아제는 첫눈이 내리면 누군가 첫눈을 밟기 전에 아침 일찍 자신이 먼저 밟아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서둘러 학교에 갔던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을 확인하면서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회화에서 생명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나 그 과정이라 한다.(정희남교수의 신나는 미술교실, 생활지혜사)

우리 회화사에 나오는 작가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창의성을 발현한 회화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원 그림이 조선시대 후기에 한국 풍경을 양식화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데는 창의성과 독창성일 것이다. 조선시대에 단원 김홍도 그림이 독보적인 것은 그 무렵 비슷한 표현을 보인 작품들이 그의 화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단원의 아들 김양기나 단원의 제자인 김득신, 백은배, 유숙, 유운홍 등이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 그림속에 단원의 작품 체취가 남아있다.



정선 1739년
청풍계도-푸른 바람이 부는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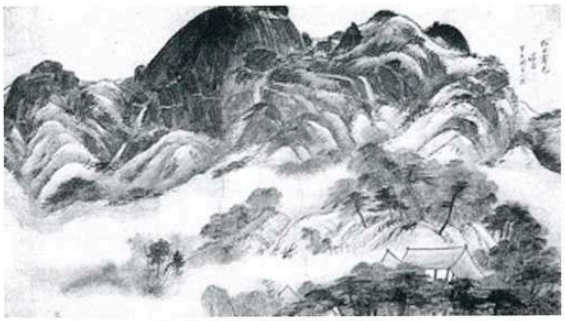


폴 세잔-생 빅트와르 산

겸재 정선은 인왕제색도, 청풍계도, 장동팔경 등 작품을 남겼는데 이 모델이 된 곳은 지금의 서울 청운동 일대이다. 특히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의 자연을 매우 즐겨 그렸다. 정선은 승경지도 그렸지만 동작진, 남산, 세검정 그리고 압구정도를 그렸다. 부벽준을

강하게 수직반복으로 사용하여 강직하고 시원한 붓놀림으로 그린 청풍계의 그림은 아름다움을 살려 암벽이 살아 있는 듯싶다. 자연 중에서 화가들이 좋아하고 인상 깊은 곳은 평생 교과서가 된 것이다. 세잔이 생 빅트와르 산을 평생을 두고 그렸다. 이 산이 그의 고향이면서 매우 좋아 했던 것으로 본다. 연작으로 그렸으며 새로운 미술이 개척되는 쾌거가 이룩되었다. 원뿔의 산이며 원통의 나무, 공으로 처리된 솔잎덩어리 등은 그의 입체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그 시대 풍미했던 인상주의를 등지고 창의성 있게 새 양식을 세운 것이다. 20세기 입체파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그림이 눈속임이 아니라 산이라는 대상이 오브제로서 형태로 파악 되었다는 것이다.

단원이나 겸재가 시대의 美術觀을 깨우치고 새로운 미술을 개척한 것은 세잔과 비교해 보듯 간과해서 볼 일이 아니다.



겸재 정선-仁旺霽色圖(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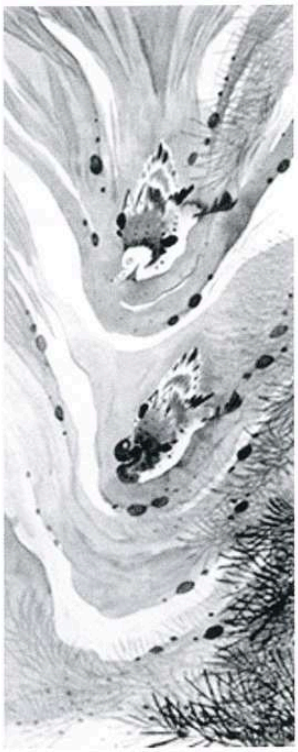


강희언-인왕산도

강희언의 인왕산도도 겸재의 인왕산인 인왕제색도 다르지 않은가. 당시 화단에서 볼 수 없는 정확한 원근법과 투시가 서국적 기법의 사생풍경에 가깝게 개척했으며 특징 있는 먹의 농담은 골계미를 보이고 있다. 홍세섭의 유압도는 지금 보아도 신선미가 있다. 조선조 세종대 이수문이 일본에 영향을 끼쳐 일본인 슈분(周文)이 한국에 다녀갔던 것은 독창성과 창의성에 있지 않겠는가. 일본 사람이 해마다 부산 동래관에 머물며 조선 그림을 사갔다. 소당 이재관의 그림이 당대 독창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의 어부도는 원경 없이 근경에 어부인 주인공이 그려졌고 초저녁 어스름 달 밤과 낚싯대와 사립문의 강아지는 오두막과 함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긍재 김득신 유압도



홍세섭-유압도


이재관-어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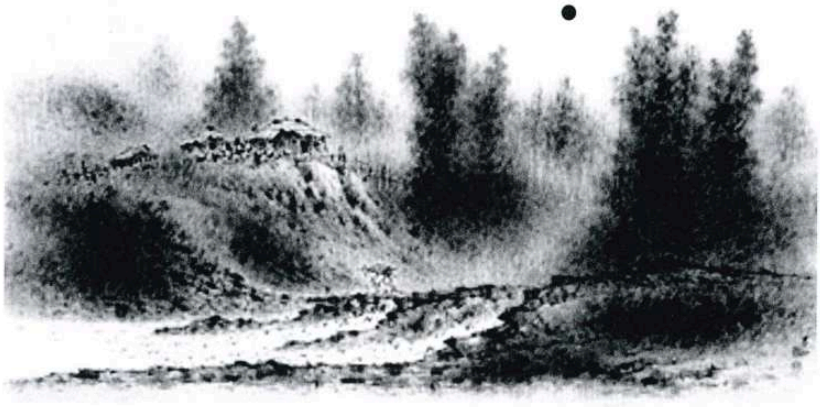

소상팔경도-봄


백은배-기려도

이 시대엔 여산초당, 적벽, 소상팔경 등 중국화풍 내지는 중국식 정자와 초당, 의복 등이 중국풍이다. 그런데 임당 백은배의 그림은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 입고 거니는 모습이다. 기려도엔 한국 강촌과 한국의복을 입혔다.

근대 화풍도 중국풍과 일본풍이 만연했다. 그 당시 청전 이상범 등 6대 화가들은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 특히 청전의 경우는 승경지를 그리지 않고 황량한 언덕이나 벌판길을 그렸다. 구태의연한 자연과 답습식 풍경을 그린다면 이미 사생아이지 않을 까.

오늘날 전시되고 있는 한국화를 보면서 쓴 웃음이 나오는 것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관념산수도처럼 답습에 의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술교육이 강사의 기법과 효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또한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기교와 재료 활용에 치중되고 있다고 본다. 개성과 창의성을 위한 교육 없이 예술혼을 말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화와 나아가서는 한국의 모든 미술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듯싶다. 따라서 각 개인의 예술혼에 대한 지도와 열정만이 화가로써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싶다. 한국화의 부활은 꿈이 아니다.


이상범-산가청류

문인화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에 대하여

이 철 규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문인화는 동양화에 있어서 양식개념보다는 정신개념을 담은 이지적인 사상을 구성하면서 성립된 예술이다. 학식과 인격이 높은 문인 사대부에 이루어진 예술이기에 그 내재 된 정신세계란 매우 심오한 것이 이었다.

문인화는 그 발생시기부터 현실세계의 온갖 부자유의 속박에서 탈피하려는 신선합일적 사상(神仙合一思想)의 노장사상(老莊思想)과 일종이 자연미관을 강조하며 '묘오(妙悟)'의 경지에서 대자연에 귀의 하려는 속세초월사상(俗世超越思想)을 형성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합일 된 경지, 즉 자연의 미를 인격화하려는 고차적인 정신성을 추구하였다. 문인화의 출발이 고차적인 정신성의 추구로 인한 사의적인 상징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문인화는 사실적인 문제보다는 화면에 깃든 작가의 정신주의를 제일주의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심오한 정신세계가 바탕이 되는 문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말기 원당(阮堂) 김정희(金正喜)와 그 추종세력에 의해 극도의 문인취미를 낳으며 크게 융성하였다. 하지만 말미에 이르러 문인화가 내용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 되었고, 사의를 중요시 여기는 본연의 사상적 측면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김정희를 비롯한 이하응, 민영익, 정학수 등 일부 문인사대부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인계급으로 한 시대의 분위기에 맹목적으로 이끌려갔을 뿐 높은 교양과 화론에 근거한 작업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격의 화풍추구가 문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바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19세기 말엽부터는 심한 형식주의로 타락 되었으며, 후진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당의 업적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고

오랜 단절을 초래하였다. 또한 근대를 넘어 오면서 문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된 데에는 그 몇 가지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문인화의 주된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시, 서, 화일치사상(詩書畵一致思想)의 붕괴현상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詩와 書는 1920년대 선전의 계기로 書는 근대적 회화로 인식되지 못하고 사실상 취미와 교양으로 간주되어 버렸다. 이는 문인화가 순순한 회화의 영역에서 제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일제 식민치하에서의 정상적인 미술활동의 중지를 들 수 있다.

셋째, 서구 문명의 수입으로 인한 사회계급의 붕괴현상으로 문인화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문인 사대부라는 신분계층의 소멸이다.

넷째, 전통적 문인화의 시대적 예술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문인화란 작가의 인품을 그림의 예술적 거치나 미적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미감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인화의 발전은 신분계층이 크게 변화되고 조선 문인사대부(文人士大夫)인 선비와 양방계층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문인화라는 하는 장르 역시 설자리를 잃게 되니, 전통 문인화의 계승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미감에도 어울리지 않는 요소가 많았다. 특히 1920년대에 이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전통회화의 개념이나 기준과 이념이나 방법이 도전을 받아 와해되는 징후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남화, 북화, 문인화등의 장르 간의 지구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변화와 화가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었다. 예컨대 사대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화가가 전문적인 직업인이 됨에 따라 사대부의 교양이나 고결한 인격으로부터 문인화의 요구만이 분리되어 하나의 양식이 된 것이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문인화를 즐겨 그리는 화가가 반드시 높은 교양이나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남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일제의 식민지 아래 짓밟히면서도 그에 항거하는 화가가 없었고, 그들의 작품에서 원말사대가나 청조(淸朝)의 석도(石濤), 팔대산인(八大山人)과 같이 정말 격조 높은 문인화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1)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문인화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근대, 현대에 와서는 문인화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타당할 것이지만 문인화가 지니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실현하려는 일군의 작가들에 의해 문인화의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문인화가 존속할 수 있는, 즉 하나의 회화양식으로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문인화 지닌 정신과 조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한 현대 문인화로서의 변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인화의 정신을 이해하면서 현대 문인화로서의 변용가능성을 나름대로 추구하였던 작가로는 중국의 청말 오창석(吳昌碩), 제백석(齊白石)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원(近園) 김용준(金瑢俊)과, 경운(頸雲) 김용진(金容鎭), 의제(毅齊) 허백련(許百鍊),월전(月田) 장우성(長遇聖)들 수 있다. 특히 김용진은 해방 후 문인화 계통의 작품에 전념하면서 문인화의 회화적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펼쳐 보였다. 허백련은 남종화법을 토대로 문인화관에 입각해 詩書畵一致의 사상을 추구하였으며, 고결한 필의와 화격을 고수하면서 문인화가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문인화의 양식적인 전환은 해방 후 등단한 새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몇몇 기성작가들의 자기 갱신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선배들처럼 전통에 얽매이지 않거나 꾸준한 실험을 통하여 문인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변용시켰으며, 이들의 미감에는 문인화의 조형성이 동양정신의 구현과 더불어 적절하게 어울린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던 것이다.

몇몇 작가들에 의해 문인화의 정신을 이해하면서 현대적 미감으로 변용시켜 왔지만 화단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후 현대화단에서는 그 인식이 사뭇 퇴색된 감이 없지 않다. 전후 현대에서는 문인화를 무조건 아마츄어들이 그리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원래부터 문인화는 산수화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수는 문인화가 아니라는 생각과 그 소재에 있어서도 사군자 혹은 화훼화만으로 인식되어져 있고2) 문인화에 내포된 격조와 은유적 함축성 등의 개념적 성격을 경원시 하고 그 기법만을 전수시키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진정한 현대 문인화로서의 변용가능성은 사군자라는 국한적인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문인화의 그 내면에 내재된 정신을 십분 이해하면서 시대적 미의식에 맞는 회화적 차원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 □ ■

참고문헌
1) 김윤수, 한국 현대 미술전집9, 한국일보사 1977, pp. 92-93
2) 홍석창, 현대문인화를 위한 제언, (미술세계, 11월호, 1985), p. 38

서예의 가치와 전북서예

이 은 혁 (서예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실은 이로부터 자신이 처한 곳에서 언어와 경험으로 축적된 관습과 문화를 터득하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른바 지행의 일치를 목표로 일생동안 배우고 실천하며 저마다의 삶을 아로새기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지역성을 벗어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성이란 곧 문화에 다름 아니다. 문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의 공동가치관념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생활관습과 그를 통해 축적된 가치관념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개인적일 수 없으며 집단적 성향을 띤다. 우리의 삶은 축적된 전통문화를 배우고 향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문화체험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생활과 문화는 결코 둘이 아닌 것이다. 인문(人文, liberal arts)이라는 말도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이라는 말로 소결을 삼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류의 문화생활이 곧 예술활동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두드러진다. 만약 예술이 일상과 전혀 다른 하나의 창작행위로만 간주된다면 그것은 결국 현실과 괴리된 특정인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인문이 단순히 인류의 문화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예술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인(人)과 문(文)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인은 무엇이며 문은 무엇인가?

◇

고래로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지역적 한계성과 삶은 곧 문화체험의 과정이라는 인문성에 대하여 수많은 성찰이 행해져왔다. 서예는 앞서 말한 인문성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는 예술이다.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문자를 아름답게 서사하는 것이 예술일 수 있느냐는 회의가 뒤따른다. 예술이 곧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형식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때 문자의 서사는 소극적인 행위로 치부될 수도 있다. 대부분 서의 예술성을 피상적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사를 떠나 예와 도의 경지에 이르면 차원을 달리한다.

전통서예가 대부분 서사라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서사는 문(文)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때의 문은 짐짓 문자나 문학을 일컫는 것이지만 서사를 벗어나면 자유경지인 예와 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서예를 단순히 문자를 서사한다는 기능적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체험하고 있는 서의 예술적 경지는 인문학의 총결이다. 서예를 하려면 우선 언어문자에 대한 인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문자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인식인 것이다. 지역성과 관련하여 서예의 기원과 발전이 한자문화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자에 대한 인식이란 한자에 대한 인식으로 견줄 수 있다(여기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현대서예 및 한글서예는 논외로 한다).

한자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자에 대한 인식 없이 서예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일종의 약속부호로서 상징적인 문자에서 미를 발견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누천년을 통하여 지속되어 왔다. 서예가 인문학의 총결이라 할 때 문화의 기원이 언어문자의 생활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술작품이 어떤 형식화된 가치체계라는 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두 언어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서예는 의미전달 면에서



여타 예술과는 달리 직접적이다. 이미지보다는 상징적인 문자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서예는 성찰을 토대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문자를 빌어 표현하며 그 의미를 담은 문자에 미적 요소를 가미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예술이다.

문자의 구성을 결구(結構)라 하듯 이미 문자에는 구성미가 내포되어 있다. 흔히 선의 예술이라 일컫는 것도 선의 구성이 곧 문자라는 인식하에서 단정된 개념이다. 그러나 서예는 점과 점을 잇는 선이 아닌 고차원의 획의 예술이다. 단순히 기하학에서 일컫는 선으로만 이해한다면 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문자에 미적 요소를 가미한다 함도 선이 아닌 획을 이른다. 그렇다면 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선에 질감이 가미되어 생명이 약동하는 질긴 근성이다. 누천년동안 수많은 서가들이 생명력 있는 획을 구사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왔다. 서(書)가 동양예술의 근간이 된다함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일획이 만획을 당해낼 수 있다. 굳이 석도(石濤)의 화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혁(謝赫)이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제시한 육법(六法) 가운데 기운생동(氣運生動)과 골법용필(骨法用筆)이 서예의 획법에 기초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득의 경지이다. 자득의 경지에 이르면 서와 화가 달리 구분되지 않는다. 이른바 서화동원이며 서화일치이다. 그러므로 서가 곧 동양예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서화라 하고, 문인화라 함도 여기에 기인한다. 별개의 서가 있고 별도의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동양예술에서 서는 항시 체(體)로서 자리하며 그 쓰임이 실로 광범위하다.

전북을 일컬어 서예의 고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 있다. 지역성을 살펴보면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남방적 온화함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풍조가 그렇다. 전북에도 이러한 서예의 가치를 중시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이 적지 않다. 시대별로 그 대략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15세기 초 고창의 영곡 고득종이 거론되고 있으며, 16세기에 활동한 익산의 양곡 소세양(1486-1562)과 고창의 노계 김경희(1515-1575)가 있다. 이후 17세기에 활동한 인물로는 김제의 백석 유즙(1585-1651)과 창강 조속(1595-1668)이 있고, 이 두 사람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명성을 떨친 이가 송재 송일중(1632-1717)이다. 그는 한석봉에 비길만한 인물로서 최초로 전북서맥의 발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8세기에는 창암 이삼만(1770-1847)과 호산 서홍순(1798-?) 등이 하나의 서파를 형성하며 활동하였다. 창암은 추사와 병칭될 정도로 개성적인 필치를 보였다. 그의 필법은 호산 서홍순, 기산 모수명, 해사 김성근, 노사 기정진(1798-1876)으로 이어졌고, 호산은 다시 호운(湖雲)과 우운(又雲)으로 가계 전승되었다.

이렇듯 창암을 축으로 하는 서파는 19세기 석정 이정직이 출현하기까지 전북서맥의 두 번째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19세기에는 석정 이정직(1841-1910)과 간재 전우(1841-1922)가 출현하면서 서단은 물론 학문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석정은 해학 이기(1848-1911), 매천 황현(1855-1910)과 더불어 호남삼걸로 일컬어진다. 이 중 석정은 연경을 다녀온 적이 있어 학문에 있어서도 매우 광범하다. 특히 서화를 겸전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서에서는 동기창류의 유려한 행서가 주류를 이루고, 화에서는 오원 장승업과 몽인 정학교의 화풍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김제에서 활동한 석정의 학문과 예술은 조주승, 오기두, 김연호, 박규환, 조기석, 조병헌, 송기면, 나갑순, 유영완, 조승, 강동희, 최승현 등에게 전수되었다. 조주승의 서화는 다시 아들 심농 조기석을 비롯하여 효산 이광열과 유당 김희순으로 이어졌다. 또 유재 송기면은 아들 소정 송수용과 강암 송성용, 정읍에서 활동한 김정기 등에게 전승되었다. 조병헌은 아들 조승에게 전수되고, 유영완은 아들 유근상에게 전수되었다. 이외에도 송헌호, 정한조, 곽탁, 서영노, 이석종, 윤제술이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이처럼 석정 이정직은 시서화 삼절로서 서화겸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광대고준한 서맥을 형성하며 사상 유례 없는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이다. 20세기의 인물로는 석전 황욱(1898-1993)과 강암 송성용(1913-1999)과 남정 최정균(1924-2000) 등이 우뚝하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 최초로 대학에 서예과를 신설한 것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개최, 강암서예관 및 석전기념관 등의 건립은 전북의 서예전통과 가치를 대변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 □ ■



작가 조병철씨 작업실에서...

평범한 작가의 특별한 그림이야기

11월의 중순 어느 날.

이맘 때 쯤 이면 가을의 끄트머리인지 겨울의 초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달리는 차창 너머의 들녘을 보면서 듬성듬성 쌓여진 짚더미들이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짧아 단풍놀이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작업실 탐방을 핑계로 시원스럽게 시외를 달리니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설레는 마음이 조금 일렁거렸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달려간 곳은 지평선이 넓게 펼쳐지는 김제 마포마을.

구 혜 경 (기획전시,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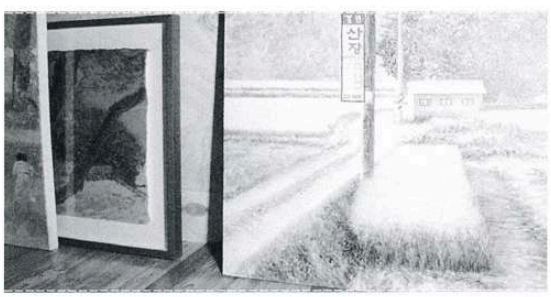
이곳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조병철 작가가 새로이 작업실을 마련하여 이제 막 터를 닦고 있는 곳이다. 작업실은 멀리서 보아서 한 눈에 들어오는 하얀색 단층 건물로 멋스럽게 이국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아 보였다. 아마도 김제가 가지고 있는 넓은 지평선의 편안함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주인의 배려된 마음인 듯하다. 작업실을 설명하는 작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띠고, 아침과 저녁이 멋진 동네라는 첫 얘기에 마냥 즐거워만 보인다. 아마도 김제라는 동네와 감성이 잘 맞는 모양이다. 작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감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작품도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서양화작가로서 고흐의 그림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오랫동안 인상주의적 화법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전혀 다른 표현법을 선보이며 작가로서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의 감성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체성과 한국적인 감성을 표현하는데 서양적인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서양화적 시각에서 동양화적 시각으로 전환한 것이다. 물론 서양화적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두 모순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조병철 작가에게는 감성이 한국적이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과 맞지 않기에 전환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작가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성은 작업에 대한 열정과 맞물려 김제 벌판 가운데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고, 새로운 작업세계로의 도전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요즘 이 작가의 최대 관심사는 犢緯에 있다. 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전국의 유명산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 벌써 2,3년째라고 한다. 수없이 오르내리는 과정 속에서 산은 알수록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여지는 산이 아니라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산은 사람과 교감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요, 동양적 감성을 표현하는 기본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통로로서 선택하고 있다. 이렇듯 산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은 겸손하면서도 진솔하지만 산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열정과 자긍심은 크게만 보인다.

작업실을 둘러보며 이런 저런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의 작업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골 동네의 한적한 가을 풍경이며 어릴 적 추억을 연상케 하는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있는 아이들, 어느 동네나 있을 법한 뒷산의 익숙한 풍경 등 지금 작가가 머물고 있는 작업실 주변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감성은 여전히 자연을 가까이 두고 진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제 시야를 넓혀서 犢緯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태로 향해 있다. 그래서 산의 원리를 찾게 되고,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감흥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감흥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확장된 풍경을 畵面 속에서도 그대로 읽어지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넓은 시야를 담기 위해 큰 그림으로 그리게 되고, 또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당연히 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模山範水'를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에서 그대로 묻어나와 여러 산중에서 먼저 내장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도 작가의 확장된 시각은 내장산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서해, 정읍 등 주변 풍경까지도 함께 읽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내년 개인전에서는 여러 곳의 산을 통해 진정한 깊이와 자신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한국화의 정체성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도 저마다 다르듯이 산도 그 느낌과 모양새가 다른데 작가들이 그려내는 수없이 많은 산을 표현한 그림 중에서 이 작가가 그려내는 산을 향한 새로운 시각은 어떻게 전달될지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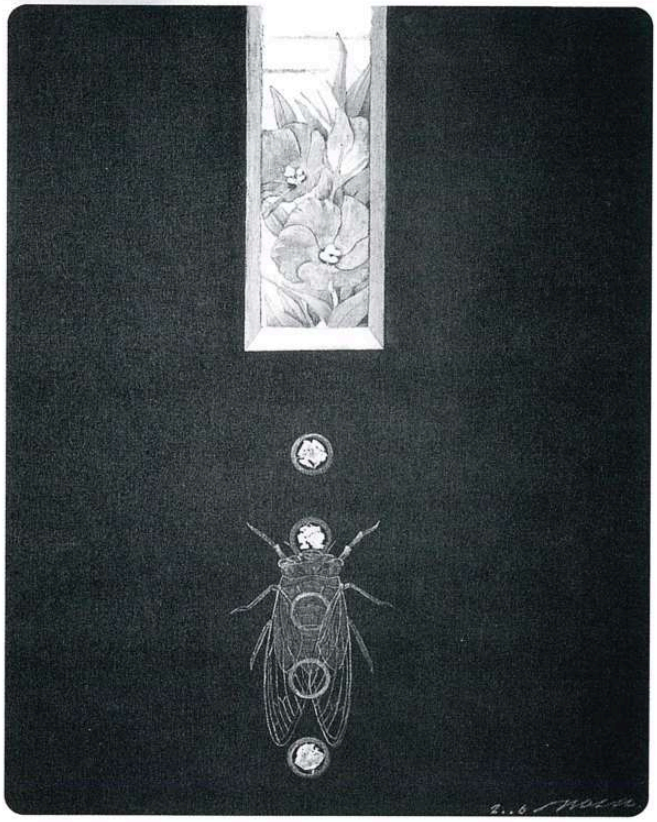
작가 조병철은 돌아올 곳이 있기에 산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도 스스로를 소시민적이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평범함 이면에 있는 예술에 대한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자긍심과 사물을 대하는 넓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예술을 하기보다는 예술인으로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처럼 이 작가는 오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조현동의 심연(深淵) - 그 단상의 시간을 엿보며...

2006. 9. 6 - 9. 15 (서신갤러리)

정 미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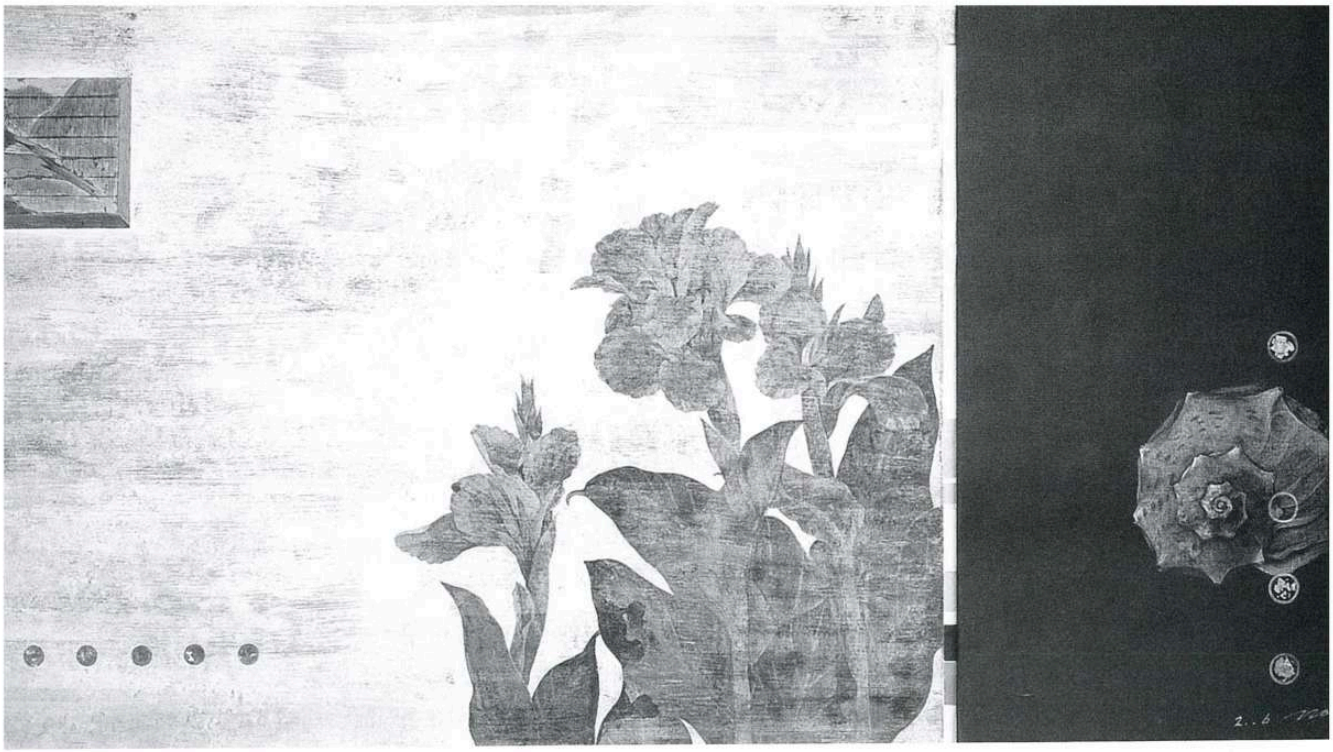


조현동 작가와의 인연의 시간을 떠올려본다. 참으로 오랜 시간인 듯하지만 살아온 날들에 비쳐진 우리의 그림자는 짧게 느껴진다. 남원이 본향인 그는 점잖은 선비의 외모를 지니고 있어 사뭇 여러 화가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사람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전주에서의 동인 활동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작가의 깊이와 작업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실함과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작가였다.

오랜만에 전주를 찾은 그의 전시에서 10년의 세월 속에 변함없이 붓과 마주보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성실한 작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2001년 이후 '자연-순환-이야기'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끊임없이 창작의 열정을 보여주었던 그의 작품 경향을 볼 때 연장선상의 작품의 흐름이었지만, 또 다른 삶의 미의식을 전하고 싶은 싶은 작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다.

본향에서의 전시회임을 의식한 탓일까? 좀더 자연에 가까이 서있는 작가의 내면이 비쳐지는가 하면 지난 추억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듯 소라, 말, 새, 곤충,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꽃의 향기들이 더욱 진하게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의 나의 존재는 과거를 딛고 서있다 - 현실이라는 공간속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술래잡기놀이를 하곤 한다." 는 그의 작업단상 한 구절을 들여 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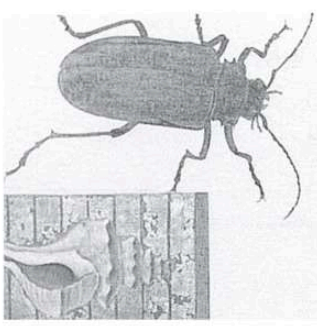


작업의 열정으로 30~40대를 훌쩍 넘고 있는 그에게 창작이라는 가상공간은 자신을 불태워도 넘기 힘든 삶의 질곡이었을 것이다. 작가의 힘겨운 작업의 산통이 함께 한 삶 터인 작품을 앞에 놓고, 산통의 끝자락에 매달려 붓질하는 작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시장에서 한낮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현동의 작품은 정갈한 그의 성품이 비쳐지듯 항상 절제된 조형의식이 반영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미의식이 잘 조화된 이분법적 표현형식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인 조형형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먹빛과 색채의 절제된 엄격한 표현은 전통적 미의식을 지켜나가는 작가 정신의 빛깔임을 알 수 있었다.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로운 자연의 노래는 따뜻한 작가의 심성을 자아냄이고, 절제된 조형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오브제의 실험적 표현은 그가 적극적인 미적 탐구가임을 직관할 수 있다.

모처럼 찾은 서신갤러리의 문을 나서면서 조현동 작가의 감성과 정신이 깊이 투영된 작품세계를 마음 한 자락에 담으며 작가의 작업일기 한쪽을 떠올려본다. "가끔은 멀리 아련하게 피어있는 신기루를 보며 잠깐이나마 힘든 현실을 떠나 미소 짓곤 한다. 그것이 나의 이상향인 양..."

* 조현동은 원광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마치고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국내외 개인전 21회와 다수의 국내외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침묵의 시간 / 25×25×102cm / 브론즈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향토작가 고갑주』

여성 인체의 우미와 성적 상징의 결합

이 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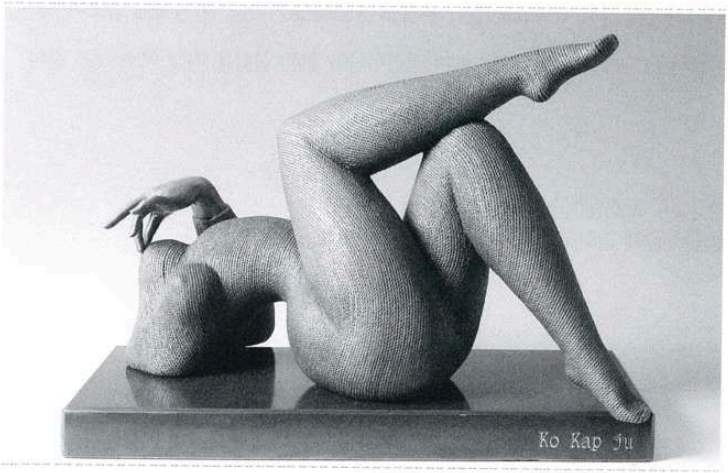
중국 청화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랫동안 작업활동을 하고 돌아온 고갑주 작가의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세계를....,
– 최병길 미학박사의 평론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침묵의 시간, 2006〉은 인물의 포즈가 섹시한 것이면서 상징 언어는 〈섹시〉와는 다르다. 즉, 인물의 동체와 하부는 전방을 향하고 있지만, 오른쪽 하방을 향하고 있는 머리의 모습, 그리고 양쪽 팔을 교차한 채 왼쪽 손등으로 턱을 가볍게 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 두드러진 치골의 모습이 우아한성적 언어로 보여진다. – 중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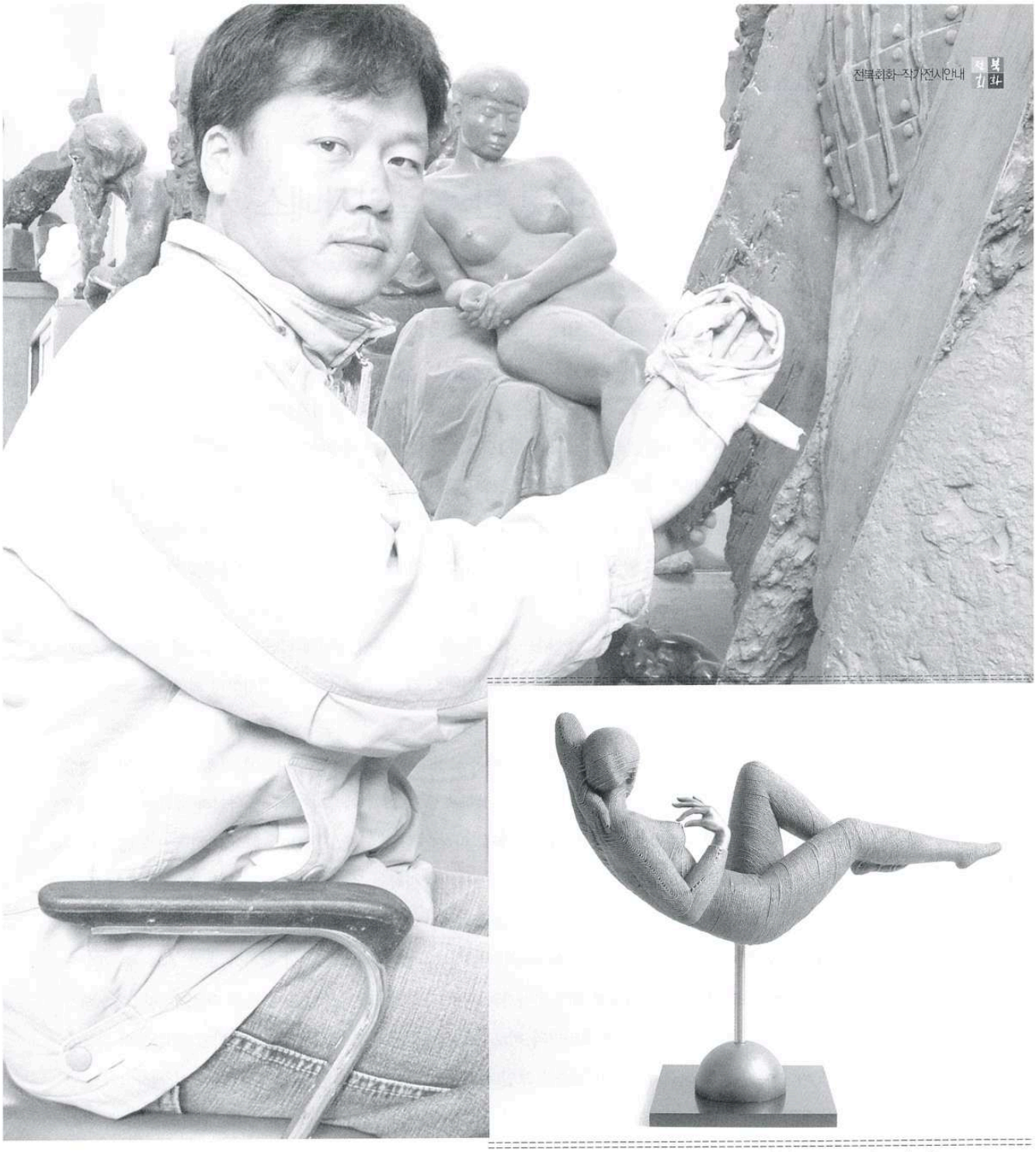
고갑주의 조각세계는 감춤 과 드러냄 의 미학이다. 그것은 현대인에게 숨겨져 있는 아누스적인 속성인지도 모른다. 특히 모든 문화현상이 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목격할 때, 그의 이러한 경향은 시대정신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것의 극적인 조형성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가 추구해온 여성의 미의식은 우미이다. 그러한 우미라는 기본이념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유행과 만나게 됨으로써 조화나 충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는 대조법을 통하여 양자를 대립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의 조각세계는 아직도 고전주의나 사실주의 전통인 우미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적인 요소들을 낭만주의적 시각으로 재치 있게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가 성적인 문제에 하나의 교훈적, 계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페미니즘적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최병길 (미학박사, 원광대학교 교수)



섹시 / 53×25×35cm / 브론즈



빈자리 / 105×30×85cm / 브론즈

고 갑 주 (ko kap ju)

- 중국 노신미술학원 조소과졸업 (석사)
- 중국 청화대학교 미술학원 조소과 (고급과정 연수)
- 개인전 5회 (중국 노신미술학원 미술관, 청화대학교 미술학원 미술관, 서울 인사갤러리, 서울 우림갤러리, 공평아트센터)
- 설치미술전 – 봄의축제 소풍 가는 길,국제조각 교류전 심포지움,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전,한 – 중 – 태 3개국교류전 등 국내외 그룹전 및 초대전에 출품하였다.
- 현: 한국구상조각회 전북조각회,한국조각가협회, 전국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목원대학교 조소과 출강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 키스 展

고 형 숙

내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의 작품을 처음 본 것은 지난 8월 중순경 TV를 통해서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헌책방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고서를 수집하던 중 그녀의 고서를 발견하여 그녀의 작품을 하나둘 사들여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반백의 그 어르신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송영달 선생님이며, 올해 번역하여 발간된 엘리자베스 키스의 「Old Korea」의 역자이셨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송영달 선생님이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화가를 알게 된 경위와 더불어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송영달 선생님의 잊혀진 우리 문화를 찾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사진으로 찍은 듯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의복의 색감이나 장신구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거리 풍경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TV를 통해 그녀의 작품을 접하고,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었다. 그러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 키스' 라는 이름으로 전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영국인으로써 1919년 일본을 통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국의 시대상황과 한국인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과 더불어 그 시대 상황을 글로 남겨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한국을 가리켜 "나를 특별히 사랑한 한국"이라 표현하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녀는 그 당시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사라져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작품 안에서 표현하였다.

처음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보고 일본의 우끼요에가 떠올랐다. 엘지자베스 키스의 목판화 초기 작품 중 〈원산〉(1919년, 채색목판화)을 보고 일본의 우끼요에 작가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廣重, 1797-1858) 작품의 〈명소에도백경名所江戶百景〉이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우타가와 히로시게보다는 굵은 선으로 사물을 표현하였지만,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도와 푸른 계열의 색감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판화 작품이 일본에서 제작되었고 일본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아마도 판화로 제작한 초기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후기로 갈수록 강렬한 푸른빛의 색감은 사라지고 한국 고유의 색상을 찾아가려는 의도가 보여 진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배경에 병풍이나 민화를 그려 넣어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은 수채화로 제작되고 나서, 일본의 판화공방에서 목판을 찍는 장인에 의하여 공동작업 되어진 것으로 그 당시 일본 판화의 작업 형식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자베스 키스의 수채화는 판화보다는 정감이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목판화에는 서명이나 낙관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고, 서명이나 낙관의 사용은 단지 작품이 어느



신부
컬러 에칭 / 37.1×23.8cm / 1938
송영달 소장



왕릉 앞에 선 시골 선비
수채화 / 39×28.8cm
송영달 소장



정월 초하루 나들이
채색 목판화 / 37.5×25.7cm / 1921
송영달 소장

공방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어떤 미술가의 지도와 감독아래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키스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의 약자와 제작년도를 판각하여 자신의 작품임을 나타내고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자신의 작품에 담았다. 1919년부터 194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제의 탄압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만연한 어지러운 시대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속의 한국인의 모습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친 민초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우아하고 진솔하며 여유를 즐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인물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모습에 놀라웠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시대에 한국의 모습을 묘사한 다른 작가들을 찾던 중 프랑스 출신의 폴 자쿨레(Paul Jacoulet, 1896-1960)의 작품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폴 자쿨레의 작품 속의 한국인의 모습은 일본의 우끼요에에 등장하는 일본인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였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일본 판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였고, 남성의 경우는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고 당당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녀의 작품에서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한 여류화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본 TV 프로그램에서 송영달 선생님은 헌책방에서 엘리자베스 키스의 Old Korea를 처음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다. 송영달 선생님의 그 짝사랑이 우리에게 잊고 지나칠 수 있었던 한국을 사랑했던 한 여류화가와의 만남을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엘리자베스 키스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음에 즐거운 마음이 든다.

엘리자베스 키스와 함께한 30분

문 혜 인 (전주온고을중)

며칠 전 모악산에 갔다가 도립미술관에 들렀다.

때마침 학교 여기저기에 포스터가 붙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키스전이 열리고 있었다. 빨리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꼭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미술관 외벽에 걸려있는 현수막부터 끌리더니, 전시장 내부의 수많은 그림들이 내 관심을 잡아끌었다. 인상깊었던 작품은 '왕릉 앞에 선 시골 선비'와 '민씨가의 규수', '아기 업은 여인' 이 세 가지다. 왕릉 앞에 선 시골 선비는 조상의 선산 앞에 서 있는 시골 선비의 모습을 왕릉 앞에 선 것처럼 바꿔 표현했다고 하는데, 시골 선비의 표정과 입은 옷, 배경에 보이는 기와집이 너무나 한국적인 풍경이어서 굉장히 인상깊었다. '민씨가의 규수'는 규수의 의복이나 치맛자락 밑으로 살짝 보이는 뾰족한 신발코가 아담하고 선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규수의 생김새나 표정이 진정한 '한국인' 다웠다. 가장 감동받았던 작품은 역시나 '아기 업은 여인' 인데, 눈덮인 추운 날에 조바위를 쓴 엄마가 아이를 꼭 업고 있는 장면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낄수 있었다. 옷이 별로 따듯해 보이지 않은데 그 추운 날에 아기를 꼭 업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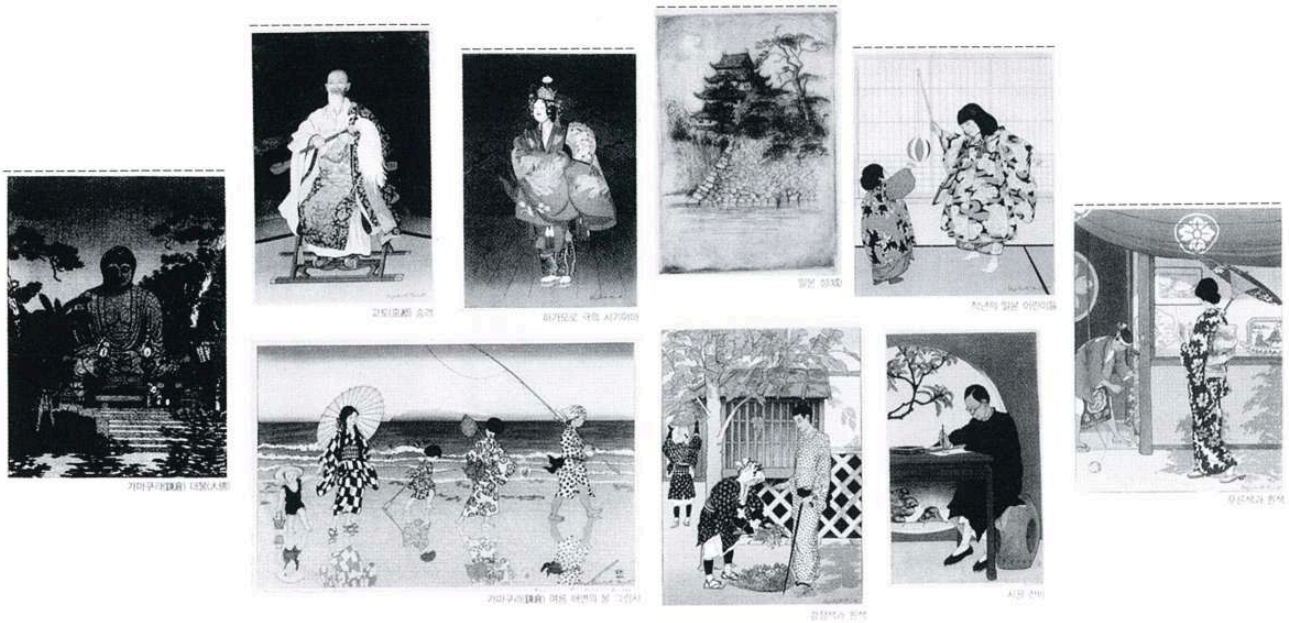
우리 엄마도 못 입고 못 먹으면서 날 이렇게 키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한테 너무나 고마워졌다.

그녀가 그려낸 '한국'이 끝나고 중국과 일본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의 상해나 소주는 나도 가본 적이 있어서 '상해의 찻집'과 '강소성 소주의 거리'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분명 내가 본 적 없는 옛 풍경 같은데도 정겨웠다. 그녀가 가진 옛 시간의 풍경과 내가 가진 현재의 풍경, 두 가지 시간의 풍경이 겹쳤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중국에서 지냈던 정겨운 시간들이 떠올랐다. 한국에 온 뒤 잊어버렸었는데...엘리자베스 키스가 고마워졌다. 나도 잊고 있던 나의 추억을 나보다 오래 전에 살았던 엘리자베스 키스가 되살려 주었다니.

일본 쪽에서는 '하가모로 극의 시기야미'가 마음에 들었는데, 머리장식과 옷 색이 화려하고 강렬한 것을 잘 표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그 극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몇 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진보다 더 그 '공연 자체'가 아닌 공연의 깊은 곳까지 표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쓴 가면의 표정이 너무나 익살스러워서 재미있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전시회는 나에게 '아주 좋았던' 전시회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모든 작품에는 단지 한국의 이미지뿐 아니라 동양의 이미지가 보였다.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 본 것이 후회되었다.

그녀가 자서전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한 한국'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녀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은 일본과 중국 또한 '특별히'는 아니어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녀의 그림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2006 광주비엔날레를 보면서

김종주(도립미술관 학예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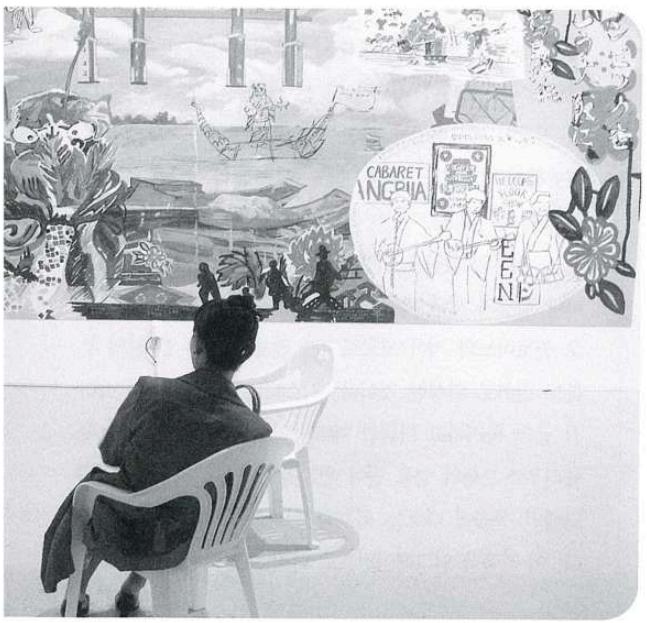
2006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이 9월 8일 개막하여 11월 11일까지 65일간 대장정을 마쳤다. 개막 날 행사에 참관하여 광주비엔날레를 축하하고 '열풍변주곡'이 울려 퍼지길 기대하면서 많은 인파 속에서 전시를 관람했다. 그러나 왠지 열풍이 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잘 짜여진 공간 배치와 원만한 작품설치는 좋지만 작품들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됐다.

주최 측은 전시의 주제로 아시아를 설정하고 동북아의 지리적 ·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전시철학과 그 미학적 근거를 도출해낸다는 것을 기획의도로 삼고 있다. 그래서 주제인 '열풍변주곡'은 현대 아시아의 변화와 역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풍은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와 역동적 비전이 중심의 이동을 전 세계로 팽창, 확산, 파급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변주곡은 아시아 권내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에 기반한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를 함의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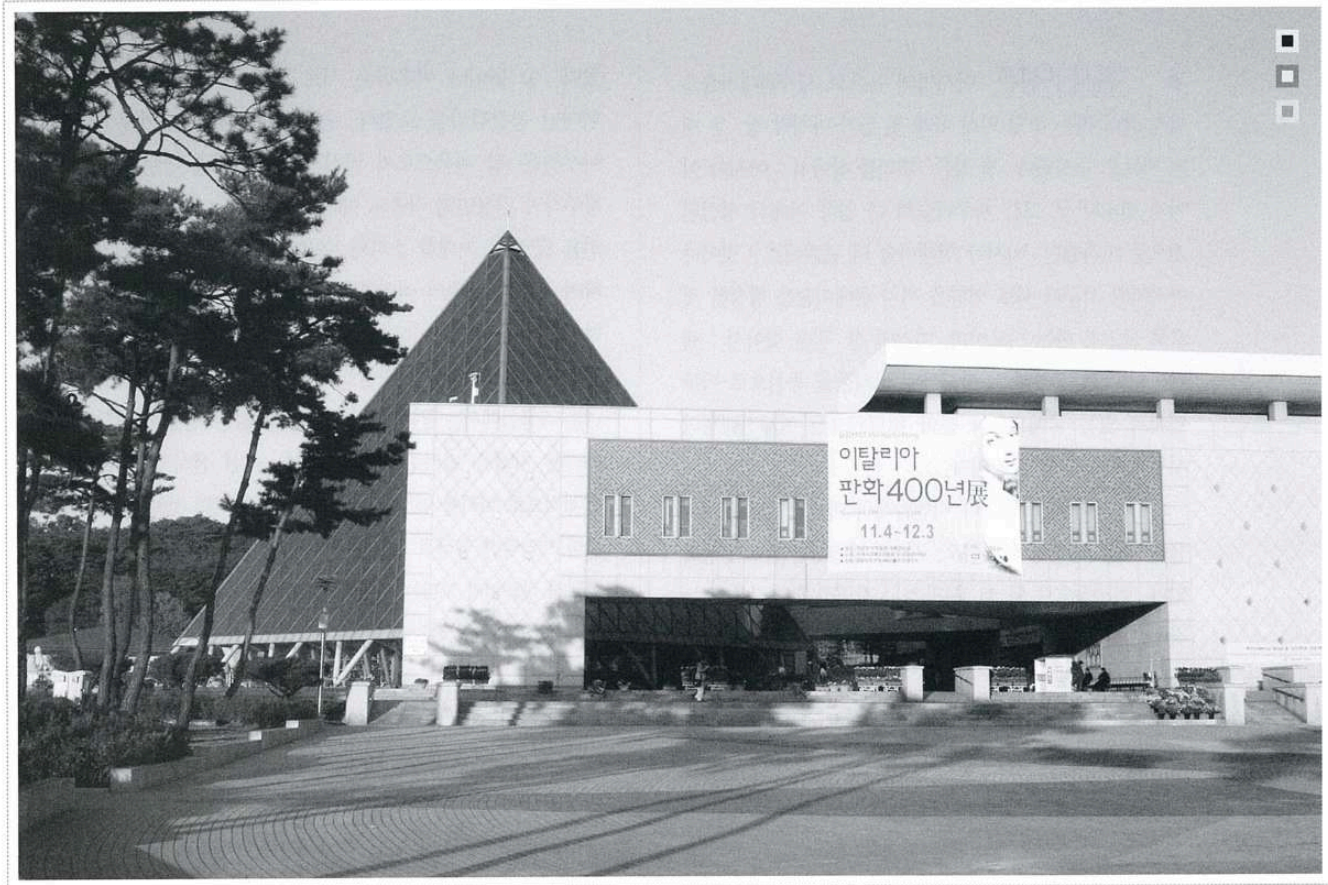
● 전시구성은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현대미술을 다시 본다' 라는 주제 의식 아래 첫 장과 마지막 장,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첫 장은 '뿌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 펼치다' 로 그간 서구미술의 큰 영향 아래서 성립된 것으로 바라봤던 '아시아 현대미술' 의 관점에?! ? 벗어나 아시아와 서구가 서로 영향을 끼쳐 현대미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이며, 마지막 장 '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 는 아시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와 문화 네트워크를 현재진행형의 시선으로 조명해 본 것이다.

전시된 작품들은 타 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면서 비디오, 사진, 평면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흥미 있고 강렬하게 눈길을 끄는 작품은 별로 없고 기존의 비엔날레 타입의 작품들과 비슷하였다. 그래도 정서적 감흥을 느낄 수 있었고 희망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송 동의 '버릴 것 없는' 이란 제목의 설치작품은 작가의 어머니가 지난 30년간 모아온 일상의 물건들을 작품화한 것이다. 바닥에 설치된 수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삶의 애환과 발자취가 그대로 전해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이우환의 작품 '침묵' 은 세 개의 붓질이 있는 빈 방이었는데, 들어선 순간 의아한 느낌이 들다가 '텅 빈 충만' 같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명상과 침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송 동이나 이우환은 서로 상반된 표현기법으로 뛰어난 공간감각을 보였다. 송 동을 공간을 꽉 채우고 이우환은 텅 비움으로써 자신의 예술세계를 만들었다. 광주작가 김상연의 작품도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으로 시선을 끌었다. 거대한 소파와 수많은 원숭이를 함께 배치하여 실존과 공존의 이미지를 흥미롭고 독특하게 표현했다. 그 밖의 몇 몇 인상적인 작품들 외에 나머지 다른 작품들에서는 차갑거나 밋밋한 느낌이 들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희망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가정을 던져주는 것 같았다. 이번 전시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건조하고 딱딱한 형식적 나열이나 기계적이고 테크닉적이거나 설명적 작품이기 보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좀더 이해하기 쉽고 시각적 흥미와 쾌감을 맛볼 수 있고 또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덧붙여 깜짝 놀랄만한 큰 스케일의 작품도 기대해 보는 것이다.



●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광주의 일반 시민들은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느 면에서 보면 광주비엔날레는 그들의 관심 밖의 것이다. 광주의 좋은 작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민의 축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축제의 장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야 진정한 광주의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이다. 정작 지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면 광주라는 지역성을 살릴 수 없으며 비엔날레의 존재 이유도 희미해 질 수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의 열기가 식어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다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의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이제 광주비엔날레는 12년 간 6회 째의 행사를 치루면서 그 역량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내는 물론 세계 현대미술계에 이슈를 던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수 비엔날레로 거듭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전시기획으로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전시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 시민들과 비엔날레 주최 측에서부터 흥이 나고 힘을 다해 준비할 때 타 지역민은 박수를 치며 관심과 애정을 보일 것이다. 다음 비엔날레에는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해 본다. ■



익산은 판화도시,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시

이오영 (원광고 2학년)

가을이 낙엽과 함께 휩싸인 익산보석박물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시장 뜰은 넓은데 전시장은 협소하였다. 작품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사람에 밀려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역사적인 판화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유럽의 사상을 전해 듣는 장소로 보인다. 세밀하게 새겨진 판화 작품이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 시력이 안 좋은 탓도 있지만 조명이 너무도 어두웠다. 너무 밝으면 그림에 손상이 주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너무도 어둡다.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없다. 내가 경험한 판화는 고무판화와 스텐실 정도이다. 그런데 에칭도 아니고 인그레이빙과 석판화 중심의 전시회이다. 특히 정교하게 뷰린으로 새겨서 제작하는 판화로 숙련이 되어야 한다는데 너무도 정교하게 되어 있었다.

르네상스부터 19세기 낭만주의 시대까지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탈리아 미술을 다 본 느낌이다. 르네상스의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비롯하여 티치아노, 부쉐, 귀도 레니 등의 작품을 판화로 전해 볼 수 있다.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화이다.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벽에 그렸던 것. 이를 1670년 조르지오 만토바노와 지아 코모로지가 전체 그림과 12점의 부분도 판화로 완성한 것이다. 시스티나 성당은 로마 바티칸 궁의 화려하고 아담한 예배당인데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아 천지창조, 제단 뒤 전체 벽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테마로 완성 시켰다. 이 작품을 인그레이빙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 유럽에서 목판화와 동판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탈리아 등에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부터이다. 11세기에 종이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오목판은 처음부터 인쇄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금은세공 기법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시 금은세공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의식용 기물이나 장식품 등에 조각으로 장식된 문양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凹 부분 안쪽에 안료 등을 스며들게 한 뒤 양피나 종이에 베껴낸 것이었다. 교회나 수도원에서는 문맹자 들을 위하여 성서 이야기의 삽화를 목판을 이용하여 제작하다가 금속 오목판이 발명되고 난 뒤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가능한 동판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점차 발달하다가 19세기 사진술과 전자동화 인쇄술이 발달하여 판화는 복제 기능은 양보하고 고유의 창조적인 점에 착안한 판화로 남게 되었다. 이번에 판화를 좀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성 요한 세례당의 문은 '천국의 문'이라고 한다. 조각가 기베르티가 27년간 걸쳐 만든 문으로 금박으로 된 브론즈 문으로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동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등의 모습을 부조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페다르 디 이바노 비치가 1798년 판화로 나타낸 것이다. 명암 없이 선으로 회화적인 원근법이 사용되었다. 한국화의 필선처럼 세밀하고 정교하다. 다윗과 골리앗, 여호수아와 여리고의 함락, 야곱과 에서, 솔로몬과 시바여왕의 만남, 노예로 팔린 요셉, 대홍수와 술에 취한 노아 등이 있었다.

에로스와 프시케는 제라르가 그린 그림을 1801년 고드프로이가 인그레이빙 판화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인물의 살결과 머리카락, 옷, 꽃의 묘사가 정말로 뛰어나다. 보이지 않는 큐피트가 키스하자 젊은 공주인 프시케가 놀라는 표정인데 너무도 아름다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보다도 더 섬기게 된다. 기분 상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시켜 화살을 쏘아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명령한다. 그러나 에로스도 그녀를 보고 반해 버린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판화 작품으로 남겼다.

우리 안에 가친 원숭이를 꺼내어 서커스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조련사가 큐피드를 상자에 가두고 하나씩 꺼내어 조련하는 모습은 측은하기도 하다. 특히 3여인이 보고 있는데 잔혹함을 느끼는 것 같다. 프랑스 화가 우베르가 석판화로 완성한 것인데 일반 소묘화 같다.

베아트리체 첸지는 16세기 이탈리아 실존 인물이란다. 절세 미녀인데 눈동자가 빛에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적과 흑'을 쓴 스탕달이 이 그림을 보고 심장이 뛰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나. 이 주인공은 14살 때 부친의 겁탈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결국 처형장에서 단두대로 사라졌다. 단두대의 그녀를 귀도 레니가 그렸고 르메르시에가 판화로 제작하였다.

마리아와 천사, 예수의 기적은 다색 목판화이다. 색채가 지금도 선명하다. 좀 크기는 하지만 카드 같기도 한데 책을 장식한 것 같다. 문자인 C, L자등이 보였다. 수호천사가 마리아를 감싸고 예수가 병이든 사람을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어 고민 하던 중 어린아이가 다섯 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자 예수가 기적을 행하여 5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밖에 나사로의 부활, 아기예수, 성자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 최후의 만찬, 성모 마리아 승천, 예수 승천, 폴리페무드가 있는 풍경, 산마르코 성당 작품은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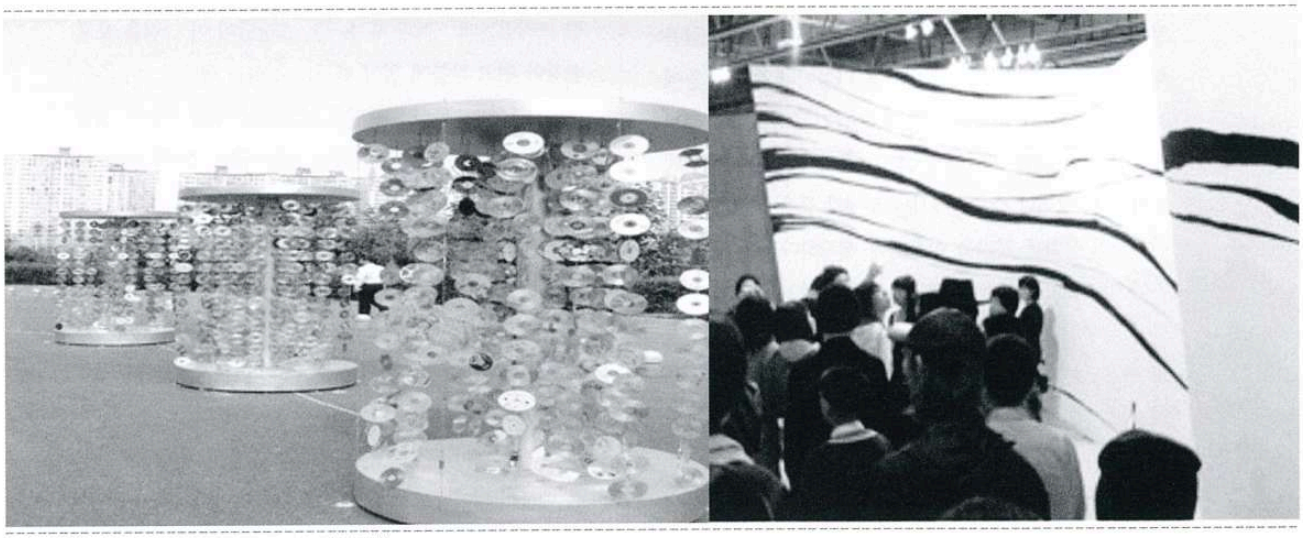
조용히! 하라는 성모마리아 작품은 요한이 자고 있는 예수를 건드려 깨우려고 하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다. 예수의 어린 모습이 어린이 같지 않고 몸통 부분이 나이든 어른 같다. 정황은 매우 감각적이다. 오래 두고 기억에 남는다.

시내에서 미술관을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다. 전문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 고생하면서 감상하기 보다는 좀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좋은 미술품을 감상 했으면 싶다. ■



열풍에 휩싸인 나

장수지 (군산대성중 1학년)



▲모세의 선택 / 벽면에 마스킹테이프, 2003 곽선경 作

벌써 6회째를 맞는 2006 광주비엔날레, 올해는 열풍변주곡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열풍'은 요즘 현대미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예술문화의 관심과 실험적 접근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로 설정되었다. 아시아 신흥도시들의 개발과 일반문화에 흐르고 있는 팽창과 확장의 발전적 의미도 내포하면서 이러한 '열풍'현상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아시아의 충만 된 내적 에너지와 비전 등을 담으로는 의도가 있는 주제어라 한다. 예술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흔히 볼 수 없는 대형 설치작품들의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작품 몇 점들.

야외광장에 전시된 작품 시디를 엮어 만든 설치작품은 '열풍변주곡'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가? 바람이 불면, 시디들이 서로 찰랑찰랑 부딪치며 눈부신 무지갯빛 멜로디를 쏟아낸다.
비엔날레 전시관 복도에 커다란 붓으로 활력 있게 터치한 듯 보이는 이 작품은 마스킹테이프를 짝짝 붙여 제작한 작품이다. 마스킹테이프라는 현대물질로 밋밋한 흰 벽면에 동양적인 냄새가 물신 풍기는 매력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이곳을 지나 걸을 때 선의 아름다움 때문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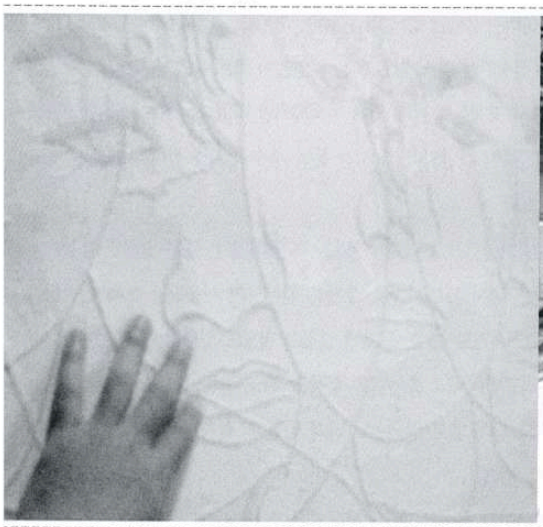


▲반추를 위한 습작 / 2006 Raqib Show 作

인도 카슈미르의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작가는 이렇듯 인도의 신화와 종교를 공들여 우리에게 멋진 작품을 선보여 주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이 작품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라는 알림 글. 비엔날레 벽면 곳곳엔 "작품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혹은 사진기는 플래시 사용도 안된다는 주의 팻말이 걸려있다. 비엔날레뿐이랴! 작품을 손으로 만져도 된단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손으로 싹싹 비벼보았다.

▼기억의 구성 시리즈 / 딘 큐 테 作



▼버릴 것 없는 / 2005 / 송동 作



▼꽃의 마음 / 2006 / 최정화 作



정말 새로운 체험, 제목이 '기억의 구성 시리즈' 이었다. 이곳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내가 손으로 만지며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그림의 선에 손때가 묻어 작품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작된 작품이라고. 그 많은 세월의 손때. 그리고 추억들, 기억들, 제목과 잘 어우러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이었다. 아마 미술작품을 손으로 비벼본 추억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설치된 이 작품을 맨 처음 보았을 때에는 그저 '시골'이라는 단어만을 떠올렸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모아졌던 집안의 물건들. 책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사진도, 손수건도 있고, 이 집안에 케케이 쌓인 물건들을 바라보면 사회의 변화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느껴지는 건,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 작가는 이 설치작품 앞에 이런 내용의 글을 붙여 놓았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는 활력을 잃었는데 이 작품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요청했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이다. 이제는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물건들, 그러나 사실 버릴게 있을까? 아무리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옛것은 항상 그리움으로 남고 전통은 어디론가 이어지고, 비엔날레 전시관 뒷면에 길게 이어진 산책로가 있는데 파란 가을하늘 아래 커다란 꽃 풍선들이 파란 하늘을 장식하고 있다. 우선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작품 4시간에 가까운 비엔날레 관람 후 허기진 배도 채우고 다리도 쉴 겸 야외에 나오며 보게 된 작품이다. 사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작품들을 보다보니 어쩐지 지겨워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되기도 했다. 이 꽃 풍선마저 지친 숨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듯 했다. 이 작품을 계속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저 밝은 빛들은, 순간. 피곤하고 지루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달아나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피곤함에 빠진 생활, 그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파란 하늘로 치솟은 알록달록 커다란 꽃모양 풍선이 파란 하늘아래 피어있다고 생각해보라. 깜찍한 발상~ 깜찍한 행복~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느꼈다.

광주비엔날레는 주전시관 외에도 주변 전시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하고 있고, 작가들의 퍼포먼스와 주위 갤러리에서 동반전시도 겸하고 있어서 꼼꼼히 돌아보려면 하루 꼬박 공을 들여야 할 듯 싶었다. 게다가 비엔날레 전시관 바로 옆의 민속박물관도 꽃으로 채워진 전시관, 모두 한번씩 들릴만한 곳이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는 어느덧 한번 가볼만한 전시회에서, 꼭 가봐야 할 전시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 '열풍변주곡'이라는 표어가 신비스러웠듯, 그곳에 있었던 전시작품들이 말 그대로 열풍변주곡 이었다. 도교육청과 미술 선생님과 함께한 11월 4일은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일 것이다. ■



금강산 기행

이 승 훈

겨울 산행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휴전선 이북에 있는 금강산이었다.



겨울 산행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휴전선 이북에 있는 금강산이었다. 날씨는 좋았다. 봄 날씨 같다. 병술년 2월 12일 당일 전주에서 강원도 설악동까지 7시간 이동해야하고 점심식사 후, 통일전망대 출입사무소와 군사분계선 넘어 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하고 금강산 호텔까지 2시간 정도 더 걸린다. 하루를 길에서 보낸 셈이다. 출입사무실 등을 넘나들 땐 긴장감을 갖게 되었었다. 군인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왠지 경계심도 갖게 되고 어색하기만 하였다. 가슴에 패용한 관광증도 어색했지만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긴 시간 동안 수속 절차를 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숙소는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호텔에서 2박을 하게 되었다. 옛날 명칭은 금강산여관인데 그쪽 수준이 좋은 편이라고도 한다. 호텔은 간부급이 이용하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여 남녀데이트 코스이기도 했다. 근처에 김정숙 별장도 있었다. 호텔 운영은 현대아산에서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고 종업원은 북한(북측) 사람들이었다. 포장마차라는 술집과 나이트클럽, 카페 등이 있고 면세품도 나와 있었다. 함께 온 다른 분은 비치호텔이라는 곳에 머물기도 했다.

술은 북한산이 여럿이고 하이트 맥주, 하이네켄 등 외국 산도 있었다. 맛은 좋은 줄 몰랐고 안주꺼리도 비싸다는 생각만 들었다. 안주는 10불짜리가 많았고, 술은 생맥주가 4불, 북한산 맥주는 10달러이다.

저녁은 온정리에서 북한산 비빔밥, 다음날 저녁은 온밥을 먹었는데 보통수준이었다. 온밥은 국물에 밥을 말아 준 것이다. 아침은 호텔 뷔페인데 고기류는 고등어 튀김이 전부고 육류는 없었다. 거의 초식이었다. 죽은 한 가지이고 국도 한 가지이다. 점심은 목란관과 옥류관에서 식사를 했는데 북한식 비빔밥이 저녁보다는 좋았고, 다음날 옥류관에서 꿩탕을 먹었는데 맛이 담백하기는 했어도 입에 맞지는 않았다. 다른 접대원보다 미인들로 구성 되었다고 보는데 말 붙이고 시중드는 것은 편해 보이지는 안했다.

밥값은 거의 10달러나 12달러, 15달러를 지급하면 더 고급스럽다고 한다. 꿩탕이 15달러인데 북한 현지식이니 맛이나 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었다. 맑은 물에 꿩 조각을 썰어 넣어 만든 요리이다. 꿩 만두와 김치조각 등이 나왔다.

아침을 호텔식으로 하고 구룡연으로 향하였다. 매서운 바람이 앞을 막고 산길은 빙판으로 쭉쭉 미끄러졌다. 잘못 디디면 눈 속으로 발이 깊게 빠진다. 등산화에 아이젠을 달고 계속 산행이 되었다. 차로 이동하는 구간은 미인송이라는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어 아름답고 매끄러운 암석이 산에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눈요기만 했다. 산길 옆에는 군인들이 오고 가고 무기들도 보였다. 그들은 손을 흔들거나 반가운 표정을 짓는 일이 없었다. 자기 할 일만 하는 듯싶었다.

산에 오르면서 빙판을 제거하는 북한 측 인부와 현대아산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도 무표정 이었다. 눈이 길을 막아 구룡연만 갔다 왔다. 폭포수며 계곡물은 모두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어쩌면 북측의 마음을 보는 듯싶다.

● 이제 봄이 오면 그들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음날 가본 만물상이 좋았다. 오르기는 힘들어도 구룡연 쪽 보다 노선이 짧았다. 구룡연은 왕복 4시간정도, 만물상은 3시간정도로 산행이 되었다. 첫날이 더욱 힘들었다.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 금강내기라 하였다. 바람세기를 내기 시험을 했는데 금강산 바람이 제일 세어서 그리 이름이 붙였다는 것이다. 일음조각과 나뭇잎들을 밀어다 붙이 고 차갑기 때문에 힘들었다. 다음날 산행은 구름비는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밀리어 천천히 올라갔다. 정상에 올랐을 땐 더욱 안개비에 산이 쌓여 눈에 형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설명해주는 안내원들의 음성도 듣던 음성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았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다. 잇큐선사를 으슥한 숲길에서 만난 떠돌이중이 불법이 진짜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가슴속에 있다고 하자 단도를 꺼내 들고 정말 가슴을 열어 보려고 하였다. 그때 잇큐선사는 "때가 되면 해마다 피는 산벚꽃 / 벚꽃나무 쪼개 봐라 벚꽃 있는 가"라고 했단다. 김정일 위원장 마음 어찌 알아 통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만 칼로 열러 보 수 없지 않은가. 단지 현재 나타나는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짐작이 안 가겠나. 그래 통일은 되어야지, 그러나 통일방법이 숙제인 듯싶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도 만만찮은 사업이다. 고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외적인 변수에 대처를 잘해야 하자면 쉽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안다. 인권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비용과 인식의 차이도 그렇고 언어의 이질성도 있다. 다만 교예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지만 좋은 점을 서로 인식하고 개방하고 나쁜 점은 나중으로 미루어 보면 뭔가 쉽게 나타날 것 같다. 금강산 등 자연환경과 문화재, 인적자원 등을 교류하면 어떨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공동선언문) 양측 공통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빨리 진행하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다. 북한은 핵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뭘 할말이 있겠는가. 폭력을 쓰는 사람한텐 무엇으로 대해야 할 까. 이게 이 민족의 과제이다. 다음은 산행을 하면서 적은 글이다. ■

금강산 산행

눈발에 묻힌 온순한 흙과 돌
긴 행렬이 무딘 심정으로 밟고 밟아
저 천길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듯 숨은 길 되어
산이 다시 험하다.

전설을 한 몸에 두른 바위와 소나무
빗발치는 콘서트의 괴성에 쌓인 시선
만대를 두고 흉한 분단 저미고도 아름다운 생각을
맑디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다시 부끄러운 빛이다.

흐린 날에도 발을 디디어
맑은 계곡인 듯싶어
꿈에들 빠져보고 적셔보건만
시큰한 결림으로 침대에 눕는 산행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연습길.



일본, 가나자와에서...

일본, 가나자와에 가다.

배민음(예원예술대학교 1학년)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는 기숙사에서 인천공항 으로 출발하여 12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수속을 마친 후 1시 비행기를 타고 가나자와를 향해 출발

2시20분경에 고마츠공항에 도착하였다. (고마츠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좀 많이 작았다) 공항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분이 장미꽃 한 송이씩 나누어 주셔서 감사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바로 일본시청 직원들과 함께 겐로쿠엔으로 출발했다.

겐로쿠엔은 5대 번주인 쓰나노리가 가나자와성 건너편 경사지에 렌치오친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그 정원을 렌치테라고 부르던 것이 시초가 된다고 전해진다. 그 후 12대 번주인 나리나가와 13대 번주인 나리야스가 대규모 정원으로 개조함으로써 웅대한 회유식 정원의 기본 구조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 3대 명원의 하나이며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명소이며 약3만 5000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아래 분수의 물은 윗 쪽의 연못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이며 자연적인 수압을 이용해 만든 분수로 평소 분수의 높이는 3.5미터이며 연못의 수위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겐로쿠엔의 분수는 시범작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이기도 하다. 이정원에는 특히 분재 같은 나무들과

노송의 아름다움이 눈길을 끌었으며 또한 정원 안을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인상적이었고 봄에 꽃이 필 땐 한층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겐로쿠엔을 보고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가나자와 성을 보러갔다.*

가나자와 성은 1546년 혼간지에 가나자와미도(불당)을 지은 때를 그 시작으로 한다. 1580년 오다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사쿠마 모리마사가 성을 지었다. 1583년 마에다 토시이에가 가나자와성에 입성한 이후 1869년까지 14대 걸쳐 가가번 마에다가의 성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종전까지는 육군의 거점으로, 1995년 까지는 가나자와 대학의 캠퍼스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눈 내린 것처럼 지붕이 하얀 것은 기와의 아연 성분이 산화돼서 하얗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요코인 가나자와 코린보 호텔에서 숙박했다.

그 다음날은 윤봉길의사가 처형된 장소와 무덤을 보았는데 그 주위가 전부다 무덤이여서 좀 무섭고, 밝은 아침이지만 어두워 보였다. 무덤을 보고 우리는 21세기 미술관으로 출발했다.

21세기 미술관은 전통과 어우러지는 현대식 건물로 개관 첫해인 2004년 157만 명의 관람객은 불러들였다고 하며 이 미술관에는 총 14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각 전시실마다 크기와 높이의 비율이 다르고 현대작품이 가지는 다양함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광원은 자연채광으로 이루어지며, 벽은 물론 입구의 위치와 크기는 움직이는 벽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나자와 대학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가 만들어온 작품을 전시할 장소인 이즈미노 도서관으로 가서 내일 있을 일본 미대생들과의 전시회를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전시회 준비는 오후 6시 정도까지 하였으며 저녁을 먹고 호텔로 향했다.

오늘은 전시회 개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이즈미노 도서관으로 가서 개회식을 하고 미술대학장과 미술교수 그리고 학생들과 이번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학교 수업시간에는 화지(한지)만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 작품을 준비할 때 오직 소재를 최대한 살리는 방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일본 학생들의 작품은 새롭고 독특하고 규제가 없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다.



면담을 마친 후 우리는 중식을 하고 노가쿠 미술관으로 향했다. 노가쿠 미술관은 "노","교겐","가부키".라는 일본 전통 극의 종류나 가면 그리고 옷을 전시한 곳이다.

"노"는 화려한 옛날 귀인의 복장과 가면을 착용한 배우가 노래와 춤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고전 문학의 한 장면을 무대 위에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격조 높게 표현한 고전극이라고 하며 "가부키"의 특징은 여성 역할을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이 연기 했다고 하며 가면은 하나같이 무섭고 이상하게 생겼다.

그 다음은 전통산업 공예관에 가서 장인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예품들을 보았는데 몹시 정교하고 아름다웠고 장인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전통산업 공예관을 관람 후 저녁을 먹고 호텔로 향했다.

그 다음날 이즈미노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내부 밑 전시되어 있는 우리 작품들을 관람 후에 가나자와시청으로 가서 가나자와 시장과 면담을 가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패션쇼가 열리고 있는 21세기 미술관으로 가서 패션쇼를 보았는데 독특한 옷들이 많았고 모델은 전문모델도 있었지만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관에서 이렇게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패션쇼를 많이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은 가나자와대학 식당에서 먹고 금박체험을 하러 야스에금박공예관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거기서 조그마한 엽서에 금박을 하였는데 좀처럼 쉽지는 않아 힘이 들었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고 있던 금을 조금씩 잘라서 손에 놔주었는데 얼마나 얇은지 손바닥의 주름이 다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금박공예를 5시간 정도 한 뒤 우리는 지친 몸을 끌고 호텔로 향하였다.

그 다음날은 가나자와 미술대학교로 향했는데 오늘은 거기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과 면담을 1시간 정도 가진 후 우리가 가져온 한지공예를 일본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은 가질 수 있었고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이틀간의 전시를 마치고 전시회장으로 가서 전시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가나자와시가 주최한 송별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까 만난 가나자와 미대생들과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을 보내고 호텔로 들어갔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먼저 우다츠야마공방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어 공방을 설명해주고 또 만드는 장소와 만들어진 작품 등을 설명해 주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작아보였던 공방이 안에 들어가자 넓은 지하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서 작업실과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을 보았는데 나도 거기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각이 들 정도였다. 공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쿠반가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에 우리는 고마츠 공항으로 이동하여 15시 55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여 17시 45분에 공항에 도착하였다.

여기 까지가 이번 일정이다.

5박 6일은 길면서도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가나자와에서 느낀 것을 우리나라로 가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What is the meaning of Naivety in contemporary painting?

-focused on Naive and primitive painting -

An, Soon Geum

In this seminar, I will present why Naive painting is popular in these days through focusing on the background and features of Naive and Primitive painting. And then, I will examine a Korean painter Hwang Changbae from the point of view of Naive and Primitive painting.

Naive Painting

Naive painters try to escape from the modernized mechanical society and to find comfort in the Naive world. Jakovsky (1976:31-32) said that in modern society there are a lot of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polluted air in our cities, the ever increasing noise, the spoiling of nature, the increasing spread of automation and the dehumanization of the individual. Sedej (1981:9) said that a new world is presented by using the most limited means and realistic detail. In *The Sleeping Gypsy*, Rousseau sought to reveal the essence of the mystery and longing for a different world. So Its heightened realism makes its dream-like figures.



Henri Rousseau: The Sleeping Gipsy
(Barr 1981:36)

In the Naive painting, there are four features: it is drawn by uneducated people, the painters usually refuse to follow the traditional style, each painter has his own expression, and especially the expression comes from the inner mind or subconsciousness. So when we see Naive painting, we need to follow our spontaneous feeling.

1. Naive artists are uneducated and untutored painter.

Jakovsky (1979:5) said that a Naive painter is untutored and has invented his own expressive and stylistic form. This does not imply that conversely a 'trained' painter can never be a Naive. Naive art may be a symbol of the search for Utopia and forgotten human integrity. Jakovsky (1979:73) explained that Ennulat, in her picture, Noah's Arc, is quite unconcerned about the rules of perspective, and exotic and native animals mingle together as if in a paradise.

2. Naive artists refuse to follow tradition. especially they do not accept the third dimensional method.

Gamulin (1981:17) said that Naive art is distinguished from folk art and popular art in that it does not depend on tradition, but begins entirely from the beginning. The result is an individual art with a personal repertory and philosophy of visual creation. Jakovsky (1976:65) explained that Steberl's *Nude Woman in a Mountain Landscape* has no special perspective, this being suggested by arranging the various pictorial elements in the manner of a back-drop. He does not reflect the real world, He uses a childlike imagination. He makes extensive use of flowers



Ennulat:Noah's Arc, 1974
(Jakovsky 1979:73)

as ornamental and compositional elements.

3. Naive painters Express a personal vision.

Jakovsky (1979:5) said that a Naive painter has his own vision of the world which is unique and the individual vision of every Naive painter arises from a condition of the soul. According to Sedej (1981:9), the Croatian painter Ivan Rabuzin has stated that he is the god of his pictures and of his world, for it is a world which exists in his imagination.



Steberl: Nude Woman in a Mountain Landscape, 1969 (Jakovsky 1979:65)

Primitive Painting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 define the concept of primitive and primitivism as follows: Broadly speaking, the label 'primitive' has been used since at least the nineteenth century to distinguish contemporary European societies and their cultures from other societies and cultures that were then considered less civilized. The label 'primitivism', on the other hand, has generally been used to describe a Western interest in societies designated 'primitive', and their artefacts. Primitivism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he discourses on the 'primitive'. There are three features: Primitivism is a modification of modern art, it expresses simple and innocent image and it refuses to follow the tradition,

1. Primitivism is a modification of modern art.

Gamulin (1981:20) said that primitive artists undoubtedly formed a separate group, more accurately a modification of modern art, ever since they appeared within modern art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Especially, this grounded on a particular psycho-physical or socio-cultural structure of the object.

2. it Expresses simple and innocent images.

Gamulin (1981:15) said that the popularity of primitive art may reflect our society's collective longing for a simpler way of life, a state of innocence akin to childhood.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19) noted that Gauguin defines his primitivism in terms of the 'simplicity' in *The Vision after the Sermon*. He suggests that his formal simplifications are themselves symbolic of the 'primitive' culture. In this respect he was following a primitivist tradition which linked 'simple' people with 'purer' thoughts or modes of expression.

3. Refuse to follow tradition and express a personal vision

Gamulin (1981:18-21) stressed that primitive art has a complete lack of historicity. In the primitive, a stylistic organization takes place in a spontaneous and instinctive manner. So the primitive vision can be recognized in signs characteristic of spontaneity and isolation.

3.1 Primitive painters have a peculiar painting method. They use Second dimensional method and they reject the third dimension.

La Motte and Schmidt (1981:27) explained the Primitive painters present everything on the same plane, the important and unimportant, succession becomes parallelism. Trivialities are omitted, or else they are only used as ornamentation.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82) said that the violently distorted forms of Picasso's *Demoiselles d'Avignon* could be interesting as effecting a break with dominant systems for the representation of three-dimensional space and the female body, as a rejection of some of the conventions of bourgeois art.



Paul Gauguin: The Vision after the Sermon, 1989.
(Harrison, etc 1993:16)

3.2 Realistic details and narrative accumulation method

Gamulin (1981:19) said that the stylistic property of primitive art consists in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details and their simple narrative accumulation on the surface of the painting. Jakovsky, too, used to favour this "realistic conception", but he noticed the fact that primitive painters operated with signs. These signs, naturally, hav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visible world, moreover, they are mostly built with the intention to imitate.

La Motte and Schmidt (1981:29) also said that it is enough for the primitive artist to endlessly repeat a detail and thus form a whole. Rousseau repeats the sign of a leaf in *Country Wedding*. A sign can also be a typical detail which serves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3.3 Addictive method

La Motte and Schmidt (1981:27) said that primitive painting proceeds by creating a detail, finishing it and then going on to the next one. The composition is produced through a chain of additions. Primitive painters believe they must show as much as they can because of their desire to be understood.



Pablo Picasso, Les Demoiselles d'Avignon, 1907.
(Harrison, etc 1993:2)

Hwang Chang-bae as an artist of Naive and primitive

I will talk about Hwang Chang-bae as an example of Naive and Primitive Korean artists. He began painting as a traditional Korean artist and he changed his style to modern Korean painting. Kim (2000:3) emphasized that like an illiterate, Hwang begins to erase the conscious learning from his canvas. After Hwang acquired all the techniques of the Namhwa, he suddenly turned away from the world of Namhwa. In this respect, Hwang is a professional artist in that he tried to follow the spirit of the times and always find something new in the modern art world.

This picture represents a Namhwa painting in the respect of technique. Most of students who specialize in Korean painting, usually pursue Namhwa and Bukhwa painting, which means that students try to use the same skills as previous painters. When Hwang Chang-bae studied painting, in the 1960s, the techniques of western modern art were not introduced in Korea. So he studied things like this picture.

However, in the age of industrial society and commercial capitalism, Hwang tried experiment on his painting with "Brave reformation" and "Reflection of spirit of the times". Seo (2000:2) stressed that Hwang's art show uniqueness in his re-varnishing, drifting, using mixed matter, disassembling, and even freely using hands and knife in addition to brushes. Like Naive painters, Hwang tried to escape from the sick mechanical society, he wanted to give liberty to people who are suffer through materialism.



Henry Rousseau:
Country Wedding
(Barr 1981:36)

Hwang's painting shows **Primitive features** : He tried to introduce narrative skills into his paintings and he piles up various colours, just as the primitive painters accumulate a lot of subjects.He tried to simplify the concrete figures in his painting just as Gauguin defined his primitivism in terms of simplicity. Gradually, he simplified the concrete figures, patternized leaves and simplified houses. And then he emphasized the effect of brush stroking itself to come near "Immanence of plane".



Noh Su-hyeon: Autumn Scenery (Kim Yeon-sik 1992:11)

In this presentation, I said that Naive and Primitive painting has arisen as a means of anti-realism to escape from the modernized mechanical society. So it gives importance to subconsciousness rather than consciousness, to passion and willingness rather than reason and morality. It creates its own rule through thinking of figure, symbol and myth. It usually rejects the third dimensional method and focuses on a personal vision which comes out of the soul. So the figures expressed on the canvas have pure and simple appearances. In the analysis of one Korean painter, I found that though he studied painting in the formal school, he sought to find something new beyond contemporary painting and a method of giving comfort to the viewers. In this process he tried to express the social phenomena in his own vision. However, he has reached similar results of post-modernism in which fragmentation method is used and subject matters are integrated by mixing different elements and quoting past work. Therefore, Naive and Primitive painting has a important meaning to the modern artists and people who suffer from complex and dehumanized society.

(A part of Seminar, 20th January, 2004.)



Hwang Chang-Bae: Sans Titre, 1990 (Oh Chul-hun, 1997)

이 글에서 나는 Naive painting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Naive painting과 primitive painting 의 공통점을 포함하여 그들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작가 황창배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이 Naive painting이나 primitive painting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 볼 것이다.

Naive Painting

Naive painting 화가들은 현대화된 기계적인 사회에서 도피하려했으며 천진무구한 세계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Jakovsky(1976:31-32)는 현대사회에는 교통 체증, 도시의 공기오염, 끝없이 지속되는 소음, 자연 파괴, 계속해서 확산되는 자동화 그리고 개인들의 비인간화 같은 많은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 있다고 말한다. Sedej(1981:9)는 새로운 세계는 가장 제한된 수단과 사실적인 상세화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The Sleeping Gypsy*라는 작품에서 Rousseau는 신비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하고 있으며 다른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 결국 그것의 강조된 사실성이 그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Naive painting은 보통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들은 교육 받지 않는 화가에 의해 그려지며, 화가들은 보통 전통적 방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각 화가들은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가지며, 특히 그 표현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 다시 말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Naive painting을 감상 할 때는 우리 내면이 이끄는 데로 따라 가면서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Naive화가들은 교육 받지 못하고 사사받지 못한 화가들이다.

Jakovsky (1979:5)는 Naive 화가들이 사사받지 않았고 자신 만의 표현 양식들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역으로 '훈련받은' 화가는 결코 Naive 화가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Naive 화가는 아마도 유토피아와 잊혀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구하는 상징일지도 모른다. Jakovsky (1979:73)는 Ennulat가 그녀의 작품, *Noah's Arc*에서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국적이고 순진무구한 동물들이 서로 함께 뒤 섞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2. Naive화가들은 전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그들은 3차원적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Gamulin (1981:17)는 Naive 예술이 민속예술이나 대중 예술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Naive 예술은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개인적인 철학과 독특성을 가진 시각적 창조물로써 개인적인 작품이 된다. Jakovsky (1976:65)는 Steberl의 *Nude Woman in a Mountain Landscape*는 어떤 특별한 원근법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림적인 요소들을 배열하는 뒷 배경 조절 방법(the manner of a back-drop)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실세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이 같은 상상력을 사용한다. 그는 광범위한 꽃을 장식적인 요소로 그리고 구성에 필요한 요소로 사용한다.

3. Naive 화가들은 개인적인 비전을 표현한다.

Jakovsky (1979:5)는 Naive 화가는 독특한 세계에 대한 자신 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Naive 화가의 개인적 비전은 영혼의 상태에서 생겨나게 된다. Sedej (1981:9)에 의하면, 크로아티아의 화가 Ivan Rabuzin가 그는 그의 그림과 그의 세계가 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그림의 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Primitive Painting

원시주의(primitivism)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면,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 는 Primitive와 primitivism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넓게 말하면, 'Primitive' 라는 단어는 적어도 19세기부터 그 시대의 유럽 사회와 문화를 그 당시에 그들 문화 보다 덜 문명화 되었다고 생각되던 사회로부터 온 문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한편'primitivism' 라는 단어는 'Primitive'라고 칭해진 사회와 그들의 유물에 대한 서방의 관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primitivism' 은 일반적으로 'Primitive'에 대한 논의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primitivism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 primitivism은 현대 예술의 변형이다. 이것은 단순하고 순진한 모습을 표현하며 전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1. Primitivism은 현대 예술의 변형이다.

Gamulin (1981:20)는 19세기 말에 Primitive 화가들이 현대 미술에 모습을 들어 낸 이후로 의심할 바 없이 별도의 단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 예술의 변형을 꾀했다고 말한다. 특히 이러한 변형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심리-물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2. Primitivism은 단순하고 순진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Gamulin (1981:15)는 Primitive 예술이 단순한 삶과 어린 시절과 같은 순진한 상태에 대한 우리사회의 집합적 갈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19)는 Gauguin이 그의 작품 *The Vision after*

the Sermon 에서 그의 primitivism을 '단순성' 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형식적인 단순화는 그 자체가 'Primitive' 문화의 상징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표현에 있어서 '순수' 한 생각이나 양식과 연결시키는 primitivist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3. 전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적 비전을 표현한다.

Gamulin (1981:18-21)은 Primitive 예술이 역사성 완전히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Primitive 예술에서는 양식의 조직이 동시적이고 본능적 방법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Primitive 비전은 동시성과 격리가 특징인 상징들 속에서 인식될 수 있다.

3. 1 Primitive 화가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2 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3차원적인 방법을 거절한다. La Motte와 Schmidt (1981:27)는 Primitive 화가들이 모든 것을 중요성에 관계없이 같은 면에 표현하며, 연속성이 결국 평행성을 만들게 된다. 사소한 것들은 생략되거나 아니면 그들은 단순히 장식으로 사용되게 된다. Harrison, Franscina and Perry (1993:82)는 Picasso의 *Demoiselles d'Avignon*에서 격렬하게 왜곡된 형태는 부르조아 예술의 일부 관행에 대한 거부로써 3차원적인 공간과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주도적 시스템을 깨뜨리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2 사실적인 상세성과 이야기적인 축적적 방법을 사용한다.

Gamulin (1981:19)는 Primitive 예술의 양식의 속성은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그들의 단순한 이야기를 그림의 표면에 축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Jakovsky(1979) 또한 이러한 사실주의적 개념(realistic conception)을 선호했지만, 그는 Primitive 화가들이 상징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 챘다. 이러한 상징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기초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이 모방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 졌다. La Motte and Schmidt (1981:29) 또한 Primitive 화가들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끝없이 상세한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Rousseau는 *Country Wedding*에서 나뭇잎의 상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어떤 상징은 확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도록 전형적인 상세화가 될 수도 있다.

3. 3 첨가적 방법을 사용한다.

La Motte and Schmidt (1981:27)는 Primitive 그림이 상세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고 다시 다음 상세한 것을 그리는 연속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그림의 구성은 연속적인 첨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Primitive 화가들은 자신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Naive 및 Primitive 기법을 사용한 작가 Hwang Chang-bae

Naive 또는 Primitive 화가로서 황창배에 대하여 논의 하겠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시작한 한국 화가이다. 그러나 그의 양식은 현대화된 한국화로 바꾸었다. Kim (2000:3)은 황창배가 문맹인처럼 그의 캔버스에서 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황창배는 남화로부터 모든 화법들을 배운 후에 갑자기 남화의 세계에서 돌아선다. 이런 면에서 황창배는 전문적인 화가이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사물의 정신을 따르려 노력하고 현대의 예술세계에서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기술적인 면에서 남화에 속한다. 한국화를 전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남화나 북화를 공부한다. 이 의미는 학생들이 기존의 화가들의 화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려한다는 것이다. 황창배가 그림을 배울 때인1960년대에는

서구 현대 예술의 기법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산업화 사회와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는 '대담한 변형'과 '시대정신의 반영'을 통해 그의 그림에 실험을 시도한다.

Seo (2000:2) 는 황창배의 그림이 덧칠하고, 되는 데로 그리고, 혼합 재료를 사용하고, 분해하고 심지어는 붓 대신에 손과 칼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Naive 화가들처럼 황창배는 병든 기계적인 사회에서 도피를 시도했으며, 그는 물질주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갈망했다.

황창배의 그림은 Primitive 특징을 보여 준다: 그는 그의 그림에 이야기체의 기법을 도입하려 하였으며, 그는 Primitive 화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첨가적으로 쌓듯이 다양한 색깔을 덧칠했다. 그는 Gauguin이 primitivism은 단순성의 관점에서 정의 했듯 그의 그림속의 구체적인 형상들을 단순화 하려고 노력했다. 점차적으로 그는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하고, 나뭇잎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했으며, 집들을 단순화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면의 내재성에 접근해 가기 위해 붓 터치 자체를 강조했다.

이글에서 나는 Naive painting과 Primitive painting이 현대화된 기계적인 사회에서 도피하기 위한 반-사실주의의 수단으로 생겨나게 되었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식보다는 잠재력에 이성과 도덕성 보다는 열정과 의지에 중요성을 두었다. 이것들은 형상, 상징, 신화에 대한 생각을 통해 그 나름의 규칙을 창조해 내었다. 이것은 보통 3차원적인 방법을 반대하고 정신에서 나오는 개인적 비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캔버스에 표현된 형상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황창배는 공식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동시대의 그림을 넘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 노력했으며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으로 사회현상을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각화(fragmentation) 방법과 다른 요소들을 섞고 과거의 작품들을 인용하여 소재를 통합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유사한 결과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Naive painting과 Primitive painting은 복잡하고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과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ibliography

Kim, B. J. http://www.hwangchangbae.com/critic_2.htm. 10th October, 2003 Visit.

Kim, Y. S. 1992. Six Oriental Painting Artist Exhibition. Seoul: Semo Gallery.

Barr, P. T. 1981. 'Henri Rousseau'. in Zdunic, D. Primitive Painting. New York:The Alpine Fine Art Collection Ltd.

De La Motte, M. and G. Schmidt. 1981. 'The Primitive Consciousness' in Zdunic, D. Primitive Painting. New York: The Alpine Fine Art Collection Ltd.

Emmerling, L. 2003. Basquiat. K?ln: Taschen.

Gamulin, G. 1981. 'Toward a Theory of Primitive Art'. in Zdunic, D. Primitive Painting. New York:The Alpine Fine Art Collection Ltd.

Harrison, C., F. Frascina and G. Perry. 1993. Primitivism, Cubism, Abstraction : The Early Twentieth Century.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Jakovsky, A. 1979. Naive Painting-Phaidon 20th-century Art. Oxford: Phaidon Press Limited.

Oh, K. S. 1997. Korean Painting Tradition in Modernism: Hanguk-hwa. Seoul: Beaux Arts.

Paul Gauguin. The Vision after the Sermon, 1989. (Harrison, etc 1993:16)

Seo, S. R. http://www.hwangchangbae.com/critic_1.htm. 10th October, 2003 Visit.

Sedej, I. 1981. 'Primitive Art in the Modern World'. in Zdunic, D. Primitive Painting. New York:The Alpine Fine Art Collect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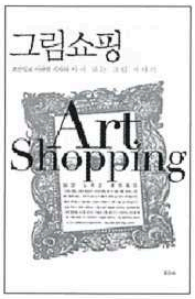
읽을 만한 책



옛그림의마음씨 〈이우복/학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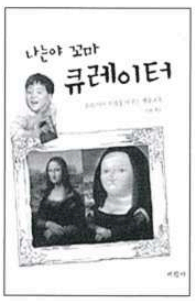
대우그룹 부회장을 지낸 저자의 열정에 겨운 미술사랑!

작품을 뜯어보고 서술하는 양태가 단순한 미술 애호나 수장가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진솔한 삶과 생각, 미술에 대한 넘치는 사랑, 많은 예술가나 학자들과의 교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저자의 본태적 심미안은 이처럼 오랜 관심과 애정, 드러내지 않는 공부를 통해 그 자신만의 세계로 다져진 듯하다.



그림쇼핑 〈이규현/공간사(주)〉

경제와 미술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삶의 질의 향상이다. 이 두 분야는 각각 물질적 조건의 개선, 정신적 풍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 목표가 같기에 둘은 빈번히 만난다. 가장 선명한 접점이 미술시장이다. 이규현 기자의 〈그림쇼핑〉은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미술시장의 기능, 변화 그리고 평범한 우리가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며 피부로 느껴온 갖가지 현상과 사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미술시장과 관련한 사통팔달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저널리스트의 순발력으로 오늘날의 시장 흐름과 관련한 크고 작은 맥을 놓치지 않고 펼쳐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지닌 큰 장점의 하나라면, 아직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개념과 얼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지닌 다른 큰 장점이다.



나는야꼬마큐레이터 〈이현/미진사〉

왜 21세기 리더십 교육에 예술교육이 들어가는가?

과연 예술교육이 무엇인가?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예술은 천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문화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해 예술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엄마가 변해야 아이의 미래가 바뀐다

남들이 보낸다고 습관적으로 미술학원, 음악학원 보내지 마라. 엄마가 먼저 깨우쳐야 한다. 한국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식 교육틀에서 벗어나 세계로 확장하라. 지금 세상은 예체능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술을 통해 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음악을 통해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힘을 키운다. 체육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교육으로 몸을 다지고, 팀웍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게 하고 있다.



미술과범죄〈문국진/예담출판사〉

아름다운 명화에 깃들여진 인간의 원초적 범죄 심리

선인, 악인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중에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아뉴스를 품고 있는데,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그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범죄 심리가 위대한 상상력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명화로 거듭난다.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 혹은 타인에 의해 죽음에 직면하게 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된 명화가 오래도록 칭송받는 이유는,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야누스를 비춰주는 명경(明鏡)이기 때문이다. 아찔한 범죄의 순간을 포착한 명화들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야누스의 양면적인 본성을 경고한다. 『미술과 범죄』에서는 명화 속에 펼쳐지는 성서, 신화, 역사의 대표적인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을 둘러싼 범죄까지, 그림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인간의 무의식적인 범죄 충동을 추적한다.

김명애	[redacted]
김서영	[redacted]
박지애	[redacted]
방경임	[redacted]
서진숙	[redacted]
안순규	[redacted]
엄기석	[redacted]
이종원	[redacted]
이승훈	[redacted]
이우경	[redacted]
이진숙	[redacted]
이철규	[redacted]
이해련	[redacted]
이환배	[redacted]
정미현	[redacted]

【 편집후기 】



어느 시인이 사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더니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영국 시인 엘리엇이 노래했는데 그런 봄도 살짝 가고 노천명이 여름밤에서 한 잠을 자고 난 애기는 아닌 밤 중 포곡새 울음소리에 선뜻해서 엄마 가슴 파고든다는 여름도 뒤숭숭하게 지났다. 이효석이 "낙엽 타는 냄새 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렇게 계절은 가고 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빛난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여 불을 인류에게 주었다가 곤욕을 치렀다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그 빛나는 일을 했을까? 오늘 겨울을 맞이하여 이 작은 책자로 반성해 본다. 옥고를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빈다.(훈)

[redacted]



■발행.편집인/이승훈
■편집위원/박지예, 이광원, 고형숙, 김윤숙
■전북회화 2006년 통권 14호
■발행일 / 2006. 12. 5
■대표연락처/011-9021-9300, 453-2127
■기획,제작/인쇄천국 Tel.287-9796, 011-255-1236

2006



www.artjb.com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